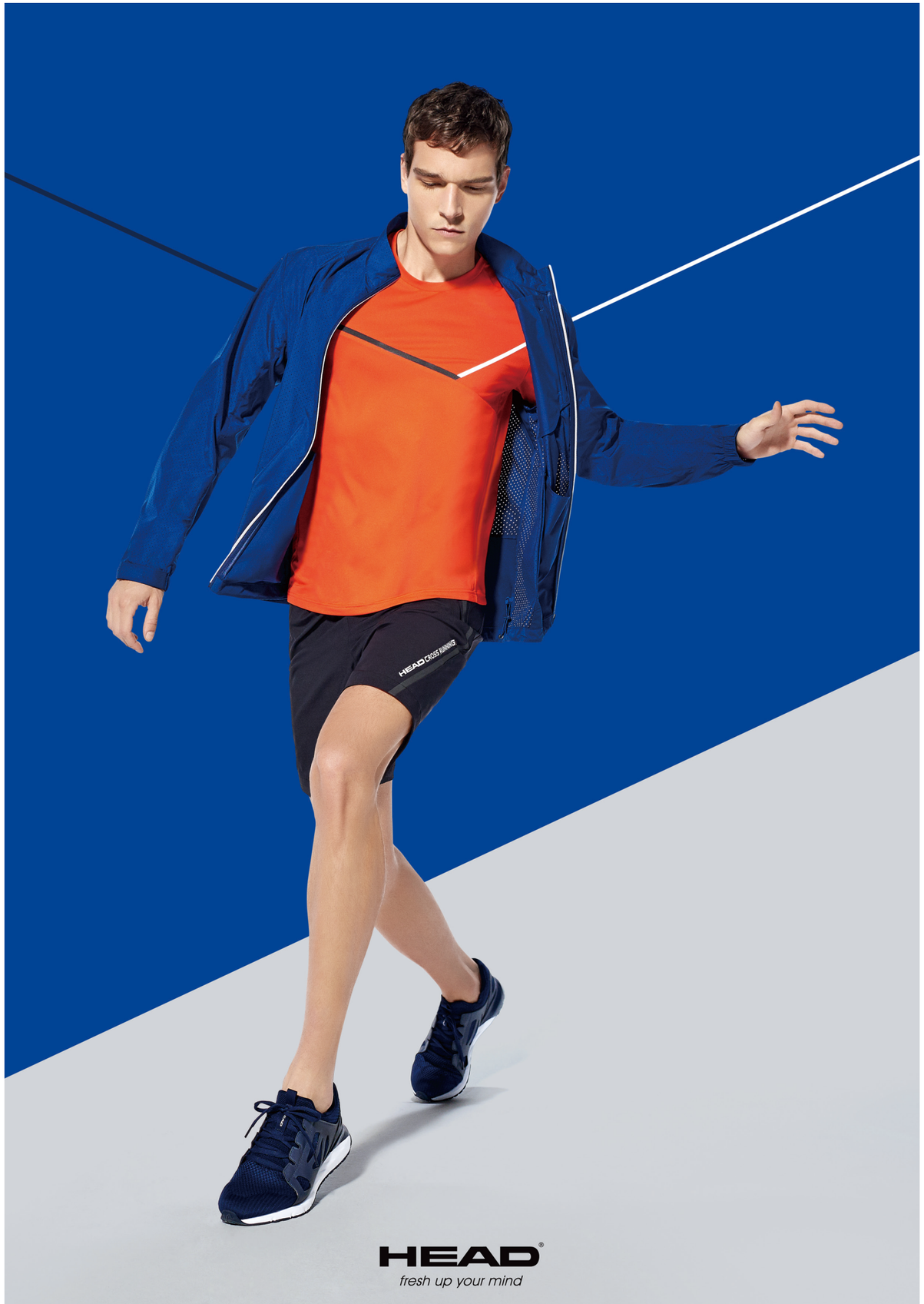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RUN FOR YOUR DREAM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2017. 3. 25 土 09:30

경주 시내 일원(코오롱호텔)

고 교 부 | 42.195km, 6개 구간

중학교부 | 15km, 4개 구간

주 최 대한육상연맹, KBS, 조선일보, 코오롱

주 관 경상북도육상연맹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주시,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특별후원 (재)올림픽마라톤후원회

방송 LIVE KBS 10:30~13:00 KBSN Sports

KOLON

KOLON

우리은행 삼성화재 SAMSUNG Kolon Motors 코오롱제약 Sports Nutrition LOTTE CHEMICAL BASF KOLON SPORT 아놀채 코오롱플라스틱(주) 코오롱베니트
Golden City 경주시 쌍용레미콘 한일시멘트 SUNGSHIN SAMPYO EUGENE CORPORATION ifew SI Group Heungkuk Life Insurance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HEAD

우리나라 첫 은행 since 1899

우리은행 WOORI BANK

SUPER PLATFORM
위비플랫폼

The Banker
Bank of the Year 2016
SOUTH KOREA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6년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금융부터 톡, 포인트, 마켓, 게임, 음악까지 강력한 즐거움이 하나로 뭉쳤다!

위비뱅크
공인인증서 필요없는 송금부터
간편한 대출, 환전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톡
귓속말, 펑메시지, 게임, 여행,
맛집/재테크정보 등
즐거움이 가득한 모바일 메신저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통합멤버십 서비스

위비마켓
우수중소기업 상품에 여행, 금융,
보험까지 핫아이템들이 착한가격으로
기다리는 모바일 오픈마켓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2016.10.13 준법감시인-2217 심의필(유효기간:2017.12.31)

BMW

Sheer
Driving Pleasure

이것은 가장 지적인 다이내믹.
THIS IS THE BMW 5 SERIES.

BMW 공식 딜러 코오롱 모터스

전시장

서울 강남 (02) 546-7301
서울 삼성 (02) 568-7301
분당 (031) 716-7401
의정부 (031) 540-7301
부천 (032) 654-7301
대전 (042) 523-7301
대구 (053) 745-7301
구미 (054) 463-7301
부산 (051) 627-7301
광주 (062) 521-7301
순천 (061) 741-7301

서비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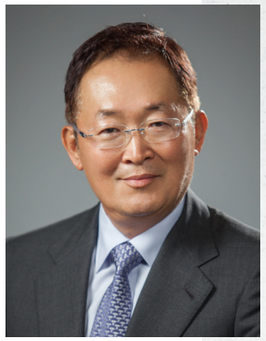
서울 성산 (02) 375-7301
서울 교대 (02) 3472-7301
서울 역삼 (02) 562-7301
서울 강남역 (02) 586-3331
서울 대치 (02) 569-7401
분당 (031) 711-7401
오포 (031) 726-7301
대전 (042) 633-7301
대구 (053) 559-7301
대구 수성 (053) 768-7301
구미 (054) 464-7301
부산 (051) 327-7301
광주 (062) 676-7301
순천 (061) 745-7301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 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
BMW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bmw_korea **BMW 유튜브** www.youtube.com/BMWKorea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BMW 5 Series 530d M Sport Package 배기량 2,993cc, 자동8단, 공차중량/복합연비 출시예정/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 출시예정) 복합(CO_2)배출량/등급 출시예정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은 해당 시리즈의 예시이며, 모델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은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2 대회사
03 치사
04 환영사
05 격려사
08 제32회 대회 Review
14 대회 임원 소개
16 대회 일정
18 숫자로 보는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22 칼럼 1 한국마라톤, 오늘의 역경을 딛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린다.
26 칼럼 2 코오롱 마라톤팀 지영준 코치 인터뷰
28 칼럼 3 오늘은 우리 모드를 위해서 달리자.
30 칼럼 4 2016년 우승 학교를 만나다!
단양고등학교 /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34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고등부 안내
58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중등부 안내
77 대회 연혁
78 역대 기록 보기



대한육상연맹
회장 **배 호 원**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마라톤 강국의 전통과 맥을 이어 나갈 선수 및 일선 지도자 여러분!

신라천년의 고색창연한 유적과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화사한 꽃망울들이 잘 어우러져 정겨운 봄을 느끼게 하는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에서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82년, 어린 마라톤 유망주들을 발굴 · 육성하여 한국 마라톤 중흥을 이루고자 창설한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는 언제나 세계정상을 향한 푸른 꿈과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힘차게 달려왔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국가대표의 요람이자 최고의 신인 등용문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을 이룬 한국육상은 국민체력증진, 우수선수 육성과 지도자 역량 강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육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마라톤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도전하며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세계적인 마라토너를 꿈꾸며 마라톤 입문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선수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나라 마라톤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재목이자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참가선수 여러분은 이번 대회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치면서 겨우내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대회 명성에 걸맞은 기록 수립과 함께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웅열 회장님과 김관용 경북지사님, 최양식 경주시장님, 최경용 경북육상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5

참가선수 여러분은
이번 대회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치면서
겨우내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대회 명성에 걸맞은
기록 수립과 함께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이 기 흥

친애하는 육상가족 여러분,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가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경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육상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5년 1회를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개최된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 대회로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마라톤의 저변확대와 마라톤 꿈나무의 조기 발굴,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의 산실로서 한국 마라톤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설과 함께 시작된 마라톤은 그 어떤 종목보다 인내와 노력, 강인한 체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며, 인간승리의 감동을 주는 종목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며 올림픽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가 선수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고, 인내력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여 한국 마라톤 중흥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마라톤을 이끌어갈 차세대 마라톤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마라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라며, 참가하는 선수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호원 대한육상연맹 회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KBS, 조선일보, 코오롱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5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마라톤을
이끌어갈 차세대
마라톤 선수를 발굴하여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마라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주시장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가 신라천년의
문화가 살아 있는 골든시티 경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를 위하여 찾아주신 관계자 및 선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런 대회를 매년 경주에서 개최토록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코오롱 이웅열 회장님과 대한육상연맹 배호원 회장님, 한국방송공사,
조선일보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애쓰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본 대회를 비롯하여 매년 4월에 벚꽃마라톤대회, 10월에는
동아일보 국제마라톤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어 역사 · 문화 · 관광 도시인 동시에
마라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33회째를 맞이하는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는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대축제로써 마라톤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마라톤 강국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선수 여러분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승부를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며, 이 대회가 배출한 황영조,
이봉주, 임춘애 등의 마라톤 스타들처럼 여러분들도 훌륭한 마라토너로
성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머무르시는 동안 신라천년 왕도의 수많은 유적지를
두루 둘러보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수와 지도자,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 3. 25
경주시장

"선수 여러분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멋진 승부를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라며,
이 대회가 배출한 황영조,
이봉주, 임춘애 등의
마라톤 스타들처럼
여러분들도 훌륭한
마라토너로 성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참가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

생명의 활기가 움트는 봄날, 우리 민족의 뿌리인 천년고도 경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마라톤의 산실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가 3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본 대회를 디딤돌 삼아
많은 건각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마라톤의 저력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가슴을 졸이고 그 승리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함께 환호하고 함께 눈물 짓곤 했습니다.

영광이 가득했던 예전에 비해
최근 한국 마라톤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초라도 기록을 단축시키고자 턱까지 차오른 숨을 참고 끝까지 달린
여러분의 소중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한국 마라톤 새 역사의 움을 틔우는 단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Run for Your Dream.
스타팅건 소리와 함께 고독한 나와의 싸움을 시작할 선수 여러분께
본 대회의 슬로건인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꿈을 향해서 달립시다.
코오롱은 앞으로도 여러분 각자의 꿈과 우리 마라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육상연맹, 경주시, 조선일보,
KBS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5

코오롱
회장 **이웅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꿈을 향해서
달립시다.
코오롱은 앞으로도 여러분
각자의 꿈과 우리 마라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오롱제약
Sports
Nutrition
근육에 힘!
아미노산
3,850mg 함유
Na
Mg
Ca
K
프리미엄 아미노산 스포츠 워터
BCAA
L-글루타민
L-아르기닌
전해질/비타민
구연산/타우린

FLOWER POWER
by KOLON SPORT
#제주 한라솜다리
KOLONSPORT.COM
플라워파워 보머 재킷

함께 달리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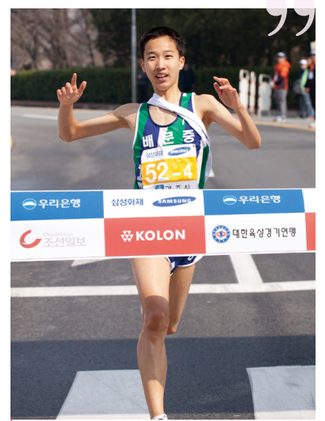
늦은 새벽까지 내린 봄비로 경주 시내 도로가 촉촉 하게 젖은 아침,
한국 마라톤을 책임질 건각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부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신예들까지,
모든 참가자는 열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맑게 갠 하늘,
청량함을 머금은 공기, 투명한 햇살이 이들이 뛰는
길을 함께 응원했다.

힘차게 달려 나가는 고등부 여자 선수들.

봄비로 젖은 경주의 아침을 달리다

3월 26일 아침, 경주에서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출발을 앞둔 1구간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을 넘어 비장함마저
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본 대회는 중 · 고등학교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어린 꿈나무들이 겨우내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는 자리
였다.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는 김완기, 임춘애, 이봉주, 지영준,
황영조 등이 거쳐간 한국 마라톤 스타의 산실이자, 마라토너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대회가 열린 당일 새벽에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경주시를
적셨다. 아침까지 계속 비가 내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느새 하늘이 맑게 개어 꿈나무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도로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준비됐다.
이날 경주의 아침은 빗방울을 머금은 꽃과 풀들이 봄 햇살에
반짝이며, 유난히 더 눈부셨다.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출발선에 선 선수들은 '출발 1분 전'
신호와 함께 함성을 지르며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현장의 공기는 이내 시민들과 자원봉사
자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워졌다. 출발 직전 극도의 긴장감 속에
출발 총성이 울리자 고등부 32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 나갔다.
선수들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오색 폭죽이 하늘을 수놓았다.
드디어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가 시작됐다.

"출발을 앞둔 1구간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을 넘어 비장함마저 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본 대회는 중 · 고등학교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어린 꿈나무들이 겨우내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는 자리였다."



결승 테이프를 끊는 배문중 오성일 선수.

01

02

예상을 깬 박빙의 승부와 에이스들의 활약

1구간 초반에 엎치락뒤치락하며 달리던 여러 명의 선수들이 4km를 지나면서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내리막이 시작되자 2년 연속 1구간 우승자인 단양고 신현식 선수가 속도를 냈다. 대회에 첫 출전한 강원체고의 이규성 선수는 그 뒤를 따라붙으며 선두 다툼을 벌였다. 여자 고등부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천 한일여고 윤은지 선수가 선두로 나섰다. 그러나 경기체고 정세현 선수도 박빙의 승부를 벌이며 따라붙었다. 결국 1구간은 남녀 모두 예상을 깨고 강원체고와 경기체고가 1위를 기록하며 2구간 주자에게 어깨띠를 전달했다.

2구간에서는 단연 각 학교 에이스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단양고 에이스 이경호 선수와 김천 한일여고 이유림 선수가 등장해 팀의 에이스답게 2구간에서 역전을 이뤄냈다. 이들은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팀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단양고는 2구간 이경호 선수가 선두로 치고 나간 후 선두를 단 한 차례도 내주지 않고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3구간을 달린 육승진 선수가 선전함으로써 2위와 현격한 격차를 벌리고 일찌감치 우승을 예약했다. 지난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단양고는 챔피언 자리를 되찾기 위해 올해 대회를 앞두고 지옥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단양고 관계자는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실전처럼 운동장을 달렸다"고 전했다. 인구 3만 명인 단양군에서는 훈련비 4,000만 원을 지원해 전남 광양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치진의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선수들의 노력을 통해 2014년 1위, 2015년 2위, 2016년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마라톤 명문 학교 반열에 올라섰다.

단양고에 이어 강릉 명륜고와 경북체고는 2시간 16분 37초와 2시간 17분 26초의 기록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김천 한일여고(2시간 36분 39초)와 김천 한일여중(56분 35초)이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한일여고는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재단의 여중 · 여고가 동반우승하는 대회 첫 기록을 세웠다. 남자 중등부에서는 3년 연속(2013~2015년) 2위였던 서울 배문중이 49분 34초로 1위를 차지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포기할 수 없고,
개인이 아닌 팀이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구간 마라톤의
진정한 매력인 것이다.

01 출발 총성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마라톤 꿈나무들.
02 우승 세레모니와 함께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단양고 민병진 선수.
03 오색폭죽을 뒤로하며 출발하는 중등부 여자 선수들.
04 결승테이프를 눈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배문중 4구간 주자.
05 시상식 후 기념 사진을 찍는 남자 고등부 우승팀 단양고 선수들.

탄탄한 팀워크야말로 구간마라톤만의 우승 비결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는 신체 발육이 왕성한 청소년기임을 고려해 학생들의 신체에 무리가 없도록 10km가 넘지 않는 구간을 정해 경기를 펼치도록 하고 있다. 고등부는 42.195km 풀코스를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1명씩, 총 6명이 경기를 펼친다. 중등부는 15km의 풀코스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총 4명의 선수들이 이어 달린다. 이 때문에 구간마라톤은 선수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구간 고른 활약을 통해 우승을 차지한 단양고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하나같았다. 학생들은 "다음 친구가 편해지려면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가 더 열심히뛰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우승한 단양고 선수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포기할 수 없고, 개인이 아닌 팀이어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구간마라톤의 진정한 매력인 것이다. 찬란한 봄이 아름다운 꽃을 약속하듯 간절한 꿈은 행복한 내일을 약속해줄 것이다.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 꿈은 불가능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리라 믿는다.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이겨내고 본인의 기록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한 60개 학교 400여 명의 어린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 이 어린 선수들의 열의와 도전은 한국 마라톤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내년에 벌어질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서도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짊어질 그들의 열정 가득한 레이스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Run for your dream!

03

04

05

FDA 미국식품안전제품등록
US. FDA Reg. No.
17602568320

+h2 few

HYDROGEN RICH WATER

퓨수소수

소수만을 위한 새로운 **프리미엄 수소水**
미용과 건강을 한번에

하얀나무 B&H T. 1599.4375

HEAD
fresh up your mind

대한육상연맹

명예회장	오동진							
고문	함기용	곽재영	한승철	손경수	양재성	주형결	이신일	진수학	홍상표

대회임원

대회장	이웅열	배호원	고대영	방상훈				
부대회장	진장옥(수석)	최경열(실무)	조원민(상근)	백옥자	윤여춘	심재용	안병덕	
임원장	김복주							
부임원장	김원식							
본부임원	최인해	김용환	김영래	김만호	이영숙	윤철훈	성봉주	김병성	이봉주
	박용모	장덕선	박병익	정봉협	김시혁	문유환	엄광열	정왕기	홍형표
	양광규	김유석	조의정	최선근	길기완	이왕복	임상규	백형훈	박승규
	송승회							

회원연맹

시도연맹회장	변창흠(서울)	성세환(부산)	손일호(대구)	박영광(인천)	박종석(광주)
	조웅래(대전)	김종일(울산)	오동희(세종)	안재근(경기)	최선근(강원)
	신동삼(충북)	전용환(충남)	정대영(전북)	송진호(전남)	최경용(경북)
	손교덕(경남)	이동대(제주)			
전국 연맹체회장	오광석(중고연맹)	박용학(대학연맹)	윤형관(실업연맹)		

경북육상경기연맹 임원

회장대행	최경용								
부회장	김국현	김진수							
전무이사	김원식								
총무이사	정정호								
경기이사	안예진								
시설이사	김태환								
강화이사	박훈서								
생체이사	양광규								
홍보이사	권순영								
상벌이사	김영수								
이사	강대출	김선주	김일만	김종환	남영호	박장우	서창환	손상영	신혜규
	안현정	예병옥	오세훈	이상근	이흥구	장전수	제인모	최진역	
감사	허진환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대회 일정

3/24(금)

프로그램	시간	장소	개요
감독자 회의	13:30	영지B홀 (1F)	선수명단 제출 및 경기규칙 설명
개회식	17:30	오운홀 (2F)	개회선언, 선수소개 등

3/25(토)

프로그램	시간	장소	개요
출발 집결	07:30	코오롱호텔 삼거리	전 참가 선수 및 운영요원 집결
고등부 출발	09:30	코오롱호텔 삼거리	고등부 구간 마라톤대회 출발 – 남녀 동시 출발
중등부 출발	09:35	코오롱호텔 삼거리	중등부 구간 마라톤대회 – 남녀 동시 출발
시상식 & 폐회식	14:30	오운홀 (2F)	폐회선언, 성적발표, 시상

각층 주요 장소 위치도

금관홀 (5F)
Press Room & 기록실

신라홀 (3F)
대회운영본부

오운홀 (2F)
개회식 / 시상식
TV 시청실

화랑홀 (2F)
선수단 식사장소

영지홀 (1F)
감독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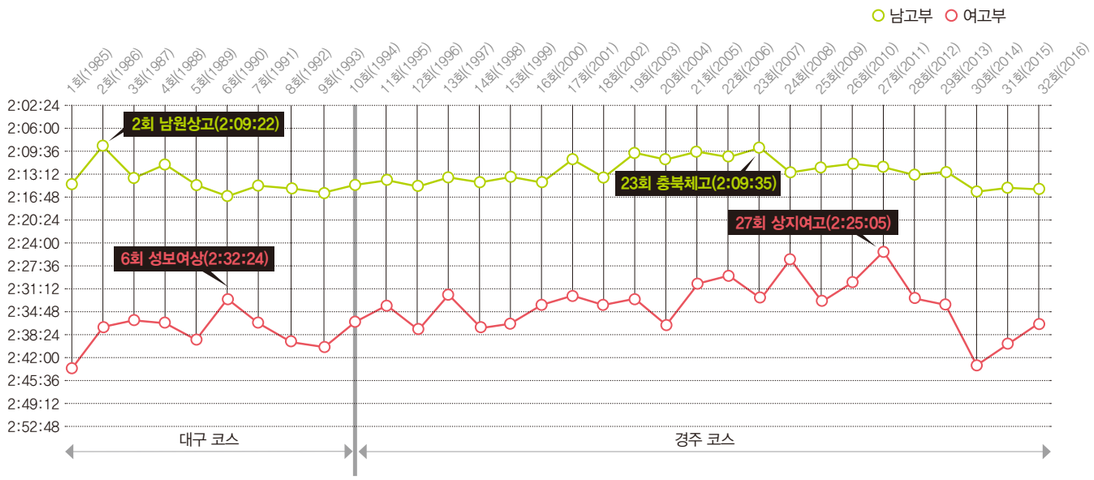
9F
8F
7F
6F
5F 금관홀 / 원화홀
3F Lobby / 신라홀
2F 금성홀 / 화랑홀 / 오운홀
1F 영지B홀 / 남산홀

기념식수 – 코오롱호텔 입구 화단
출발지점 – 코오롱호텔 삼거리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 집결지 – 골프장 3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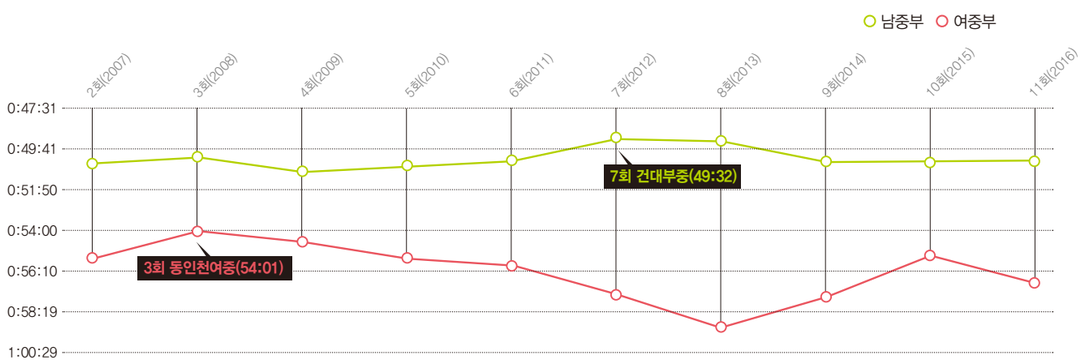
코오롱호텔

숫자로 보는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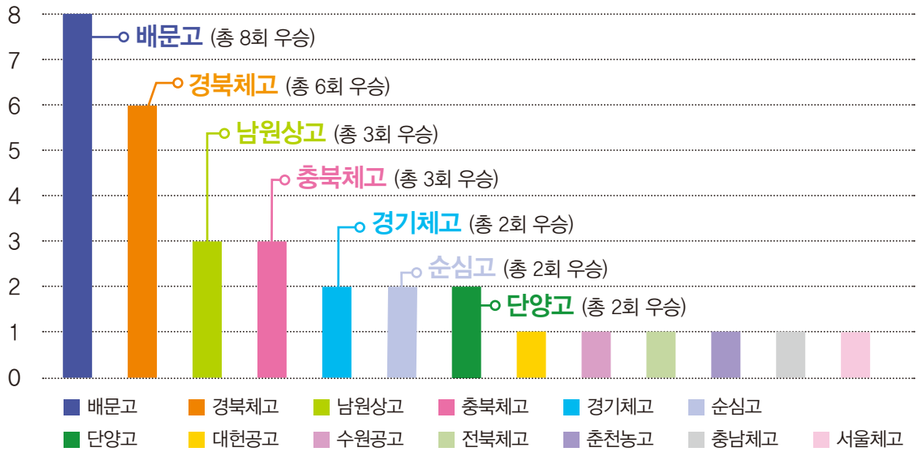
고등부 연도별 기록변화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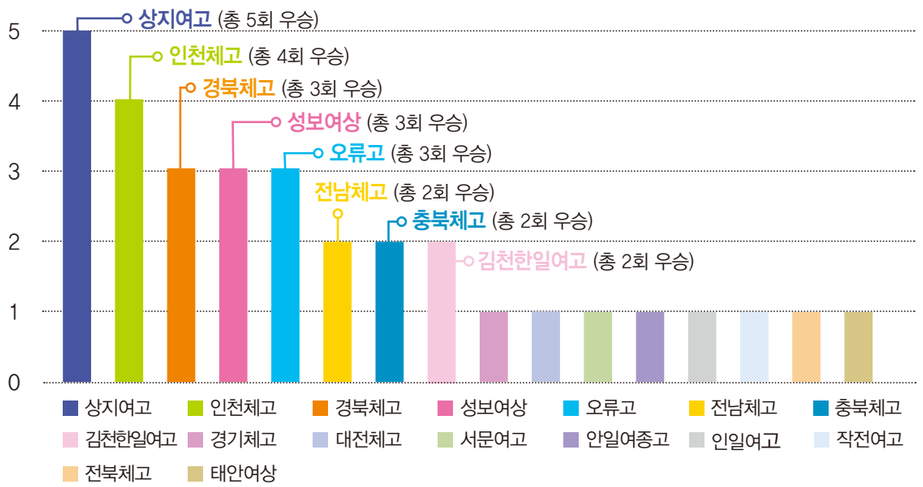
중등부 연도별 기록변화표



참가 학교별 역대 우승횟수 (남)



참가 학교별 역대 우승횟수 (여)



UNESCO 세계문화유산

경주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릉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불교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된다. 신라천년(B.C 57 ~ A.D 935)의 수도(慶州)인 만큼 불교유적, 왕경(王京)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유적의 밀집도, 다양성이 뛰어난 유적지로 평가된다.

버스노선 60, 61

불국사 · 석굴암 10D

불국사는 751년(경덕왕 10)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로 197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 백운교 및 연화교 · 칠보교 등 경내의 조형물 하나하나가 신라 불교 미술의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법당과 탑이 서있는 기단 위의 가람 자체가 불국을 상징하고 있다.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사원으로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불사(석굴암)을 창건하였다. 거친 화강암으로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불국사 불국로 385 / 054)746-9913 / 버스노선 10, 11, 12, 700
석굴암 불국로 873-243 / 054)746-9933 / 버스노선 12

한국의 역사마을 7A

양동마을은 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마을이다. 오랜 건축 및 생활 양식이 전승, 보존되고 있는 마을임을 인정받아 동강사원, 옥산서원, 독락당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을 포함하여 150여 채의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고색창연함을 자랑하고 있다. 경주 손씨의 여강 이씨 양 가문에 의해 형성된 집성촌으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옛 환경과 생활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유교 전통문화와 관습 그리고 고택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동면 양동마을길 134 / 054)762-4541
버스노선 203, 252

대릉원 5f

"17추왕은…재위 23년 만에 돌아가니 대릉에 장사지냈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대릉원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미추왕릉, 황남대총, 천마총 등 23여 기의 고분이 밀집해 있으며 특히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래에 그려진 천마도와 함께 관관과 금제허리띠 등 국보급 유물 수십 점이 발굴되었다. 천마총은 유물과 함께 내부를 공개하고 있어 신라인의 무덤 형식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계림로 9 / 054)772-6317 / 버스노선 60, 61

첨성대 6g

천문관측과 관련한 건축물로 2중 기단 위에 30cm 높이의 돌 27단을 쌓아 올렸고, 꼭대기에 우물 정(井)자 모양의 사각형 돌을 짜 올렸다. 구조와 구성은 물론 돌 하나에도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맨 위 정자석의 겉이가 기단부 겉이의 꼭 절반인 점 등 여러가지 과학적이면서도 신비함이 가득하다.

첨성로 140-25 / 버스노선 60, 61

계림 6g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 설화가 서려 있는 곳. 이 숲에서 닭 울음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나무에 황금궤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신라건국 초기부터 있던 숲으로 2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숲이다.

교통 1 / 버스노선 60, 61

월성 7h

신라의 궁성이 있던 곳으로 반월성 신월성, 재성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왕궁의 흔적은 찾기 힘들고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석빙고와 자연 생벽의 일부, 생벽돌레에 성을 보호하기 위해 팠던 도랑인 해자터가 남아있다.

안원동, 교동 지대 / 버스노선 11, 60, 61, 600, 601, 602, 603, 604, 605, 607, 609, 700

국립경주박물관 8h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와 예술을 압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하여 화려한 금관과 불상 등 경주 곳곳에서 발굴된 3천여 점의 유물을 상설전시실(신라역사관 · 신라미술관 · 월지관), 옥외전시장, 특별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자동음성서비스(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받으면 더욱 알찬 관람을 할 수 있다.

입장료 186 / 054)740-7500 / 버스노선 11, 600, 601, 602, 603, 604, 605, 607, 609, 700
관람시간 09:00~18:00(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야간개장 09:00~21:00(3~12월 중 매주 토요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월정교 6h

월정교는 경덕왕 19년(760년)에 건립된 다리로, 월성의 서쪽에 있으며, 남천의 남북쪽을 연결하여 남산과 왕궁을 잇는 교통로이자 화려한 왕궁의 다리였다. 2009년 길이 66m, 폭 9m, 높이 8m 규모로 복원되어 또 다른 경주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 27f / 버스노선 60, 61

동궁과 월지(안압지) 8g~9g

나라의 경사를 맞아 축하연을 거행했던 동궁(東宮)으로서 문무왕 19년(679)에 세웠다. 월지는 "궁안에 못을 파고 가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삼국사기 문무왕 14년(674)조에 기록하고 있으며, 군신들의 연회나 귀빈접대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월지는 동서남북 약 190m 규모의 인공 연못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압지로도 불리었다.

원화로 102 / 054)772-4041 / 버스노선 11, 600, 601, 602, 603, 604, 605, 607, 609, 700

교촌한옥마을 6C

교촌마을은 요석궁이 위치했던 곳으로 교촌마을로 불렸던 것은 경주향교가 있기 때문이다. 일대를 정비한 후 각종 전통문화 체험장 등 민속문화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명한 경주 교동최씨고택이 남아 있다.

교촌길 39-9 / 054)779-6142
버스노선 60, 61

황룡사지 7C

553년에 시작하여 645년(선덕여왕 14)에 완성했다. 궁궐을 지으려다 누런 용이 나타나 절을 세웠다는 설화로 전해온다. '신라의 땅이 곧 부처님이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이 잘 나타나있는 곳이며, 솔거가 그렸다는 금당벽화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신라의 세 보물 (신라 삼보) 중 둘을 가지고 있었던 절로 황룡사 구층목탑과 장륙존상이 그것이다. 지금은 목탑터와 금당지 등이 남아있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버스노선 10, 16, 100, 100-1, 150, 150-1, 700

경주향교 6C

신라 신문왕 2년에 처음 세워진 국학이 있었던 곳이다. 경주향교가 처음 지어진 시기는 잘 알 수 없으나, 조선 성종 23년에 서울의 성균관을 본 떠 고쳐 지었다고 한다. 매주 토 · 일요일 1박 2일 향교에 머물며 예절, 의례, 한문서당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교촌안길 27-20 / 054)775-3624

분황사 7C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된 신라 77평 중 하나로 원효, 자장 등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었던 고승들이 거쳐 간 사찰이다. 경내에는 전탑을 모방한 국보 제 30호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으며, 신라시대의 석탑으로는 최초로 만들어진 3층1.5 이웃해 있는 황룡사와 함께 신라의 대표 사찰이었다.

분황로 94-11 / 054)742-9922 / 버스노선 10, 16, 100, 100-1, 150, 150-1, 700

나정 3k

나정은 박혁거세의 탄생설화가 있는 곳으로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나정을 비추고 백마가 절을 하는 형상이 있어 가보니, 백마는 하늘로 날아가고 알이 있었는데 알에서 박혁거세가 나왔다고 한다.

탑동 700-1 / 버스노선 500, 505, 506, 507, 508

창림사지 3k

신라 최초의 공궐을 지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삼층석탑과 특이한 형태의 귀부 등 창림사의 흔적만 전해진다. 삼층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기단부에는 4개의 팔부신중이 남아있는데 아수라상이 특히 유명하다.

버스노선 500, 505, 506, 507, 508

포석정지 4k

포석정은 신라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지금은 옛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고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의 흔적인 깊이 약 22m의 수구만이 남아있다. 경애왕이 견훤에게 최후를 맞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남산순환로 816 / 054)745-8484
버스노선 500, 505, 506, 507, 508

삼릉골 5j

골짜기 입구에 삼릉이 있어 삼릉골이라 불리며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선각육존불, 석조여래좌상 등 남산의 40여 골짜기 중 가장 많은 불교 유적이 있는 곳이다.

버스노선 500, 505, 506, 507, 508

용장골 6i

용장골은 남산의 고위봉과 금오봉 사이에 있다. 용장사곡 삼층석탑, 삼륜대좌불 등이 용장골의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매월당 김시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쓰기도 했다.

버스노선 500, 505, 506, 507, 508

남산탑곡마애불상군 2j

이 일대는 통일신라시대에 산인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9m나 되는 사각형의 커다란 바위에 여러 불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였다. 북면에는 좌우로 목탑형태의 양측, 7층탑 27체씩이 있는데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완비되어 신라목탑 양식 고찰에 중요자료이다. 또한 남쪽 바위 면에는삼존과 독립된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고, 동쪽 바위 면에는 불상과 보살, 승려, 그리고 비천상을 표현해 놓았다. 버스노선 11, 604

통일전 4j

통일전은 삼국통일의 주역 태종무열왕과 김유신장군, 문무왕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화랑을 따라 기록화를 전시하고 있다.

칠불암길 6 / 054)748-1850 / 버스노선 11, 604

서출지 4i

이 곳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연못으로, 소지왕의 목숨을 구한 편지가 나왔다 하여 서출지로 부른다. 연못에는 이요당이라는 정자가 물속에서 솟아오른 듯 들기둥 위에 서 있으며, 반은 물 위에 떠있는 구조형으로 된 정자이다.

남산길 17 / 버스노선 11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칠불암마애불상군 5i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은 장백굴자락에 구름을 타고 하강을 하는듯 보살상이 미려에 삼면두식의 보관을 쓰고 입가에는 한없이 근엄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구름을 타고 속계를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칠불암마애불상군은 경주 남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 중 대표적인 마애불상군이다.

버스노선 11

경주 하이코(HICO) 6m

2015년 3월 2일 개관한 경주 하이코(HICO)는 3,5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중심형 컨벤션센터로 관광특구인 보문단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숙박, 레저 등 다양한 편의시설, 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제기구, 기업, 정부 등 컨벤션 주최자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문로 507 / 054)702-1000 / 운영시간 09:00~21:00(연중무휴) / www.hicocity.kr / 버스노선 10, 18, 100, 100-1, 150-1, 700

경주동궁원 2i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총 면적은 64,830㎡이고, 주요 볼거리로는 동궁식물원, 경주버드파크가 있으며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체험공간도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에게 특히 좋다.

운영시간: 09:00~20:00 / 연중무휴 / 보문로 74-14
054)779-8725 / gyeongjueup.kr / 버스노선 10, 16, 18, 100-1, 150-1, 7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6n

자구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문화체험의 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이 '즐식'과 '문화'와 '체험'이 있는 상상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주 엑스포 공원은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는 문화축제의 장이며, 최고의 역사 · 문화체험 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감로 614 / 054)740-3021
버스노선 10, 16, 18, 100, 100-1, 150, 150-1, 700

보문관광단지 테마파크

경주월드	보문로 544	054)745-7711	www.gjw.co.kr
캘리포니아비치	보문로 544 경주월드	054)745-7711	
블루원워터파크	보불로 391	054)778-9000	www.blueone.com
신라밀레니엄파크	엑스포로 55-12	054)778-2000	www.smpark.co.kr
경주힐링테마파크	천북남로 101	1899-1165	
테디베어박물관	보문로 280-34	054)742-7400	
토이밀리지	보문로 391	054)772-9000	
추억의달동네	보불로 216-4	054)748-5002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엑스포로 9	054)776-5502	

원성왕릉(괘릉) 9D

신라 제 38대 원성왕의 능으로 능 둘레 호석에는 십이지 신상이 새겨져 있고 봉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역인의 얼굴모습을 한 무인석이 있어 눈길을 끈다. 신라능묘 중 가장 잘 완비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외동읍 괘릉리 산17
버스노선 600, 603, 604, 605

동해권

기림사 11C

양북면 기림로 437-4 / 054)744-2252
버스노선 130

골굴사 11C

양북면 기림로 101-5 / 054)745-0246
양북면 기림로 130

감은사지 13D

양북면 용당리 55-1
버스노선 150, 150-1

이견대 13D

감포읍 동해안로 1480-12
버스노선 150, 150-1

문무대왕릉 (대왕암) 13D

양북면 봉길해안길 41
버스노선 150, 150-1

경주 양남 주상절리 13E

양남면 읍천리 405-7
버스노선 150, 150-1

경주의 해수욕장

054)779-6320~23

관성솔밭해변	양남면 양남로 58-38
전촌솔밭해변	감포읍 동해안로 2008-6
봉길대왕암해변	양북면 봉길해안길 33
나정고운모래해변	감포읍 동해안로 1978
오류고아라해변	감포읍 동해안로 2468-7

한국마라톤, 오늘의 역경을 딛고, 내일의 꿈을 향해 달린다.

꽃샘추위를 뚫고 따스하게 빛나는 봄 햇살과 함께 찾아오는 경주의 벚꽃, 벚꽃들의 화사한 인사를 받으며 꿈을 향해 달리는 소년 소녀들이 있다. 3월 마지막 주 주말 아침을 힘찬 발걸음으로 열어주는 그들, 한국마라톤의 꿈나무들이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도 어김없이 33년 동안 이어져 왔던 마라톤 유망주들의 도전은 이어진다. 바로 여기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서 말이다.

학교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교대항전으로 출발했던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의 역사가 33년이나 된 것이다. 1985년 이 대회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42.195km를 5구간으로 나뉘어 뛰었고, 1994년 10회 대회 때부터 6구간 경기로 바뀌었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가 선수들 의 목표는 한국마라톤 기록 경신. 마라토너를 꿈꾸는 같은 팀의 선수가 각자의 구간을 책임지며 자신의 개인적인 기량을 뽐낼 수 있을뿐더러 같이 힘을 합쳐 한국마라톤 기록에 도전함은 물론, 마라토너로 향해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중요한 기회의 장이 바로 이 대회였고, 대회 장소와 규칙 등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33회를 맞이한 지금도 그 목표와 대회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1985년 1회 대회 때부터 5구간을 나누어 뛴 기록을 합친 결과는 1회 남고부 우승팀 경북체고가 세운 2시간 14분 21초, 당시 한국최고기록인 2시간 14분 59초보다 빨랐을 정도로 한국마라톤에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려온 대회가 바로 이 대회이다. 2회 대회 때는 남원상고가 2시간 9분 22초로 종전기록을 5분 정도 앞당겼는데, 이 기록은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33년 역사상 최고기록으로 지금껏 깨지지 않고 있다. 그 이후 이 대회는 남자부에서는 구간기록들을, 여자부에서는 구간기록을 비롯한 전체구간합산 기록을 단축하며 기록의 장이 됐고, 미래 스타들을 발굴해내는 한국마라톤의 산실로 자리매김해나갔다.

스타의 산실이자, 우상을 만나는 자리

당연히 많은 스타선수들이 이 대회를 거쳐 갔으며, 이 대회를 통해 가능성을 보였다. 1986년 2회 대회 때, 30년 역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던 남자부 남원상고 김완기 선수는 2구간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학교 우승에 한몫했다. 그 고등학교 선수가 현역시절 한국기록을 3차례나 갈아치우며 90년대 초반 한국 마라톤의 기둥으로 활약했던, 한국 국가대표 마라토너 그 '김완기'다.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를 통해 가능성을 알린 김완기는 1990년 풀코스 첫 도전인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 11분 34초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92년 뉴욕마라톤에서 3위에 올랐으며 94년 동아 국제마라톤에서는 2시간 8분 34초의 당시 최고기록으로 한국 마라톤의 기록 레이스를 이끌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또 이미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임춘애가 다음 해인 1987년 3회 대회에 성보 여상의 일원으로 참가해 1구간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 중장거리 정상권의 실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임춘애는 "당시에 팀을 만들기조차 쉽지 않아 대회에 못 나가는 학교도 많았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이유로 나도 고3 때 딱 한 번 뛰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안게 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 해였고, 또 내가 가장 잘 뛰었던 시절에 나간 대회였기 때문에 1구간에서 기록도 세우고 그랬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1987년에 임춘애의 질주가 있었다면 올림픽 준비로 온 나라가 분주했던 1988년에는, 한국마라톤의 전성기를 이끌 미래 꿈나무 하나가 이 대회를 통 해서 날개짓을 시작했다. 강릉 명륜고 2학년이던 황영조가 1구간에 출전한 데 이어 다음 해 1989년에는 3학년으로 3구간을 달려 종전기록을 1분 정도 앞당긴 30분 02초의 기록으로 3구간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리고 3년 후 1992년 황영조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금도 '몬주익의 영웅'으로 한국마라톤 역사의 한켠을 장식하고 있다. 당시 황영조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유망주로 육상관계자들의 눈길을 모으던 선수가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광천고등학교의 '이봉주'다. 운동을 다소 늦게 시작해 이 대회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팀의 에이스로 중요한 구간을 뛰며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알렸다. 이봉주는 "시합을 나간 경험도 별로 없던 터라 햇병아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선수들에게 이 대회는 자신의 우상을 만나는 대회이기도 하다. 나는 임춘애 선배의 사진을 대회 책자에서 오려서 지갑에 넣어 다니기도 했다"며 가슴 한켠에 묻어놓은 추억을 미소와 함께 살짝 꺼내놓았다.

이어 1994년 권은주, 1999년 충남체고의 지영준 등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구에서 경주로 대회장소를 옮겨 치러진 1994년 10회 대회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들과 유망주들의 탄생은 이어졌다. 1987년 해외팀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1997년에는 조선족팀이 처음으로 출전했으며 2006년에는 중학교 대회까지 신설되며,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는 명실상부 한국 마라톤 유망주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1985년. 1회) '제1회 전국 남녀 고교 구간 마라톤대회'의 남자부 우승팀인 경북체고가 대회임원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1986년. 2회) 남원상고는 2시간 9분 2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 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경신되지 않은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국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교대항전으로 출발했던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의 역사가 33년이나 된 것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가 선수들의 목표는 한국마라톤 기록경신. 마라토너로 향해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중요한 기회의 장이 바로 이 대회. 대회 장소와 규칙 등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33회를 맞이한 지금도 그 목표와 대회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터뷰/성보여상 임춘애 01

장거리에 자신감 생겨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은 결승 육상스타 한사람을 만들어 냈다. 육상 800m·1,500m·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 일약 아시아 육상 3관왕의 자리에 오른 임춘애(성보여상 3학년) 선수.

그녀가 이번 대회에 첫 출전한 성보여상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이 큰 화젯거리가 되었다. 몇 소구간을 뛸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낼 수 있을까…….

임춘애 선수는 성보여상의 1소구간(9km) 주자로 출전하였는데 2km를 지나면서 독주하기 시작, 남자 주자 선수들조차 따돌리면서 31분 49초의 구간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여 아시안게임 스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여고 3학년의 평범한 10대 소녀. 뒤풀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순간까지도 코치 선생님(김연일씨)의 허락없이는 쉬게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보기힘든 한다.

「지획했던대로 큰 차질없이 뜻대로 된 것이어 기분이 좋아요. 코치선생님은 기록이 좋아 발표되면 하는데 지로서는 기록이도 만족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제1중계지점까지 거의 혼자 뛰다시피하여 부득 힘이 들었다고. 「코치선생님이 남자선수들과 같이 뛰라고 하셨는데 막상 남자선수들을 따라갈려는 힘이 들었어요. 초반에 너무 빨리 뛰어 중반이후 페이스 잡기에 어려움도 있었죠.」

임춘애선수는 넘치 않아 말대로 성실히 맡동니어서 겨울만에 어려운 환경에 빠고 끊은 힘으며 뛰어온 입지전의인 선수. 지난해 6월 전국체전 여고 3천m에서 한국신기록(9분 21초 9)을 우승을 하면서 육상계의 새별로 떠오른다. 주로 중거리를 뛰어 왔으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에 대비해 주전을 맡고 있다. 장거리는 10km까지 뛰어보았다.

「아시안 게임후 주로 체력보강훈련이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 대회 후부터는 스피드 훈련에 역점가게 돼죠.」

장거리를 대비하여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체력보강과 스피드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올해 연습일과에 따라 88올림픽 출전을 목이 걸릴될 것같이오. 이번 대회를 하면서도 마라톤에도 자신감이 생겨 중거리보다 장거리를 뛰어보고 싶습니다.」

성보여상팀은 임춘애선수의 역주에도 불구하고 제2주자 김유라선수가 순위를 지켜줄뿐 나머지 주자에 지도로 좋팀은역 기록에 그치고 말았다.

성보여상팀의 코치인 김민철씨는 「대회가 참가선수나 진행면에 있어서 최고수준급이다」라고 밝히면서 「88 올림픽이 끝나고 내주년에는 성보여상팀을 출전시켜서 꼭 상위입상을 노리보겠다」고 다짐했다. ※

TV중계되는유일한고교대회, 큰경험된다.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감독, 코치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의견을 같이한다. 고등학생들은 도로에서 경기 할 기회가 흔치 않다. 그러니까 정말 마라톤처럼 뛸 수 있는 기회로 보면 현재 로서는 이 대회가 사실상 유일하고, 또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가 이 대회를 가장 큰 대회로 여기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마라토너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중장거리 육상선수들이 보통 1년에 나가는 대회는 5개 안팎이다. 그마저도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TV 중계 는 꿈꿀 수조차 없는 게 현재 한국 고교마라톤의 현실이다. 따라서 트랙이 아닌 도로에서, 훈련이 아닌 실전으로 마라톤 경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란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흔치 않은 게 한국육상의 현실이라는 얘기다. 마라토너 에게 도로에서의 경기 경험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지형지물에 따라서 작전 이 바뀔 수가 있고, 그 지형지물과 날씨 등은 경기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 되며 이 대회 성적의 관건은 어떤 선수를 어떤 구간에 넣느냐 하는 작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린 선수들은 카메라가 따라오면 긴장한다. 그러므로 이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는가도 변수 중에 하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은 한층 성장한다는 것이다.

01 1987년. 3회) 훗날,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최고 스타로 기억에 남을 임춘애 선수(성보여상)가 31분 49초의 기록으로 1구간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02 1989년. 5회) 남자부 우승팀인 남원상고는 5년간 총 3회의 우승으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팀으로 발돋움 하였다.
03 1994년. 10회)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회장을 기존의 '대구'에서 '경주'로 변경하였다.
04 1995년. 11회) 대회 종료 후, 참가한 선수들이 코오롱호텔 외부에 설치된 종합기록표에서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05 2006년. 22회) 한국 마라톤 꿈나무 육성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 중학교 로드 레이스대회'가 추가되어 고등부 대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06 2013년. 29회)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대회 스폰서로 참가하여 한국 마라톤 중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마라톤의희망은 바로이곳에있다.

올해로 33주년을 맞는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도 고등부 25팀(남 19팀, 여 6팀), 중학교부는 18팀(남 12팀, 여자6팀)이 어김없이 도전장을 냈다.

33년째 매년 이맘때면 한국마라톤의 새싹들이 대회에 참가해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왔지만 웬일인지 한국마라톤은 언제부턴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뒷걸음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이봉주가 필요하다는 외침도 공허한 메아리가 된 듯 이봉주 뒤를 이을 한국의 간판 마라토너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육상계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또는 다른 종목들처럼 마라톤에도 귀화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저변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한 두명의 자녀를 두는 가정이 많아지고, 부모나 자녀들이나 힘든 운동을 시키고 싶지도, 하고 싶지도 않아 한다. 혹 운동신경이 좋아 운동을 시키더라도 육상은 안중에도 없으며 어렵사리 유망주를 발굴해 훈련시켜 놓으면 다른 인기종목으로 스카우트 되기 일쑤다. 이에 대해 이봉주는 이렇게 말한다.

"육상을 해도 다른 종목만큼 성공할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 분명 길이 열린다. 나는 솔직히 남들보다 운동도 늦게 시작했고, 평발에 짝 발, 스피드도 느렸다. 단점이 많은 선수였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욕심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다면 '미쳐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봉주의 노력에 얽힌 일화는 무척 많다. 특히 신혼여행을 가서도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는 육상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또 부상이 없어 오랜 시간 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봉주 본인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나도 잔 부상들이 많았고 수술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 마라톤선수들의 고질병인 족저근막염으로 고생도 많이 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 딛기가 힘들 정도일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다. 내겐 목표와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봉주는 "학교 체육이 활성화 되는 게 중요하다. 그나마 코오롱 대회 같은 대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학교는 홍보가 된다. 이만큼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가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 이 대회를 통해 유망주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뛰고 있다. 도로를 달리면서 한국마라톤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이 속에 임춘애 같은 미래 아시안게임 3관왕이 있을 수도, 스타 선배를 동경하며 더 큰 꿈을 꾸는 이봉주 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 3월 25일 있을 제 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33년을 묵묵히 달려온 이 대회에서 한국마라톤 부활의 열쇠를 찾을 수도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코오롱 마라톤팀 지영준 코치 인터뷰

2017년 3월 7일 오후 경기도 이천

한국 마라톤 간판 스타이자 2010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지영준 코오롱 마라톤팀 코치(37). 그가 2009년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2시간8분30초는 한국 마라톤 상위 10개 기록 가운데 가장 최신 기록이다. 한국 마라톤은 2000년 이봉주 선수가 도쿄 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7분20초를 뛴 이후에 멈췄다.

/

인터뷰 남성잡지 〈DEN〉(김임수 에디터)
사진 정영주(스튜디오 D.O.)

한국 마라톤이 침체기다. 2000년 이후 한국 기록이 17년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만 지난 리우 올림픽의 부진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예외적인 경우다. 충분히 30위권 이내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었지만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서 완주한 것이 독이 됐다. 듣기로는 음식이나 현지 적응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봉주, 황영조, 지영준 같은 선수들이 안 보인다.

선수층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마라톤 황금기 때는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팀들도 많이 없어졌다. 선수가 많아야 경쟁을 통한 발전이 가능한데, 힘든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시키려는 부모님이 많이 없다.

가까운 일본을 봐도 선수층이 확연히 다르다.

일본은 마라톤 대회를 하나의 축제로 보고 도시 전체가 반기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인식은 아니다. 하지만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처럼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선수가 있나.

삼성의 손명준 선수와 한전의 심종섭 선수, 그리고 코오롱의 노시완 선수다. 올해 코오롱에서 영입한 최민용 선수도 주목해달라. 지난달 경기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우승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좋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코오롱 마라톤팀 선수들 훈련 스케줄이 궁금하다.

보통 대회를 앞두고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 첫 달은 부상 방지를 위한 체력훈련 위주로 진행한다. 두 번째 달은 조깅 수준으로 뛰면서 조금씩 페이스를 올리며 몸을 만드는 시기다. 석 달째는 거리주와 인터벌 트레이닝 위주로 최적의 상태에서 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집중한다. 마지막 달은 테이퍼링(연습량 줄이기)을 통해 대회 일정에 맞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뛰지 않을 때는 어떤 훈련을 하나.

똑같은 근육을 쓰면 피로가 빨리 쌓이기 때문에 사이클이나 수영 등 크로스 트레이닝(교차 훈련)을 병행한다.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훈련이다. 물론 운동 시작 전후 스트레칭은 의무적으로 한다.

경기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마라톤 체격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타고 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두상이 작고, 가슴이 앞뒤로 두껍고 하지장이 길면 마라톤에 유리한 체격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 시절 달릴 땐 어떤 생각을 하며 버텼나.

어느 선수나 그렇듯 35㎞부터 40㎞까지는 마의 구간이다. 이 구간을 달릴 때는 그동안의 훈련 과정을 떠올린다. 힘들게 고생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호흡을 가다듬고 끝까지 가는 힘이 된다.

코치로서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

아직 올림픽 메달권을 말하기는 이르다. 내년에 있을 아시안 게임 메달권에 들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소망이다. 특히 우리팀 선수들이 내년 아시안 게임에 선발돼 3위 안에 들어 대한민국 마라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선수층은 줄고 있지만 마라톤 동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선수들 기록이 공인되는 대회는 서울국제마라톤, 대구국제마라톤, 새만금마라톤 정도지만 동호인 수준에서 참여하는 대회는 셀 수없이 많다.

마라톤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신발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금만 준비하면 10킬로 대회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대회에 참여해 완주하면 성취감도 높고 사람을 사귀는 계기가 된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참여한다.

요즘은 지역 단위 대회도 많이 열리는데, 가족 단위 참여율이 높다. 언제 어디서든 운동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마라톤의 가장 큰 매력이다.

꾸준히 대회에 나가다 보면 목표 의식도 생긴다. 10㎞를 뛰면 20㎞를 뛰고 싶고.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해야 몸을 만들 수 있다. 최소 일주일 2~3회는 뛰어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근육도 알맞게 잡힌다. 빈도수가 높아지면 달릴 수 있는 거리나 달리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프코스 완주를 마음 먹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처음 마라톤에 입문하는 분과 5㎞나 10㎞를 이미 뛰어보신 분들이 다를 것 같다. 처음 입문했다면 걷기 훈련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뛸 때는 즐거움 마음으로 뛰고 최소 30분 이상 지속한 후 쉬는 게 좋다. 10㎞만 완주한 분들은 이미 중급자다. 꾸준히 거리주 훈련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병행하며 조금씩 목표 거리를 늘려나가면 충분히 하프코스(20㎞)를 완주할 수 있다.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 좋은 기록이라면 어느 정도인가?

아주 잘 뛰는 동호인 분들은 10㎞ 33분대도 들어오신다. 선수들은 보통 30분대다. 중급자라면 35~36분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된다. 45분 이상 넘어간다면 준비가 덜돼 단련이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을 체크하는 것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다. 욕심을 가지면 훈련에 참여하는 빈도와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 같다.

지속주와 거리주 트레이닝 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지속주는 페이스를 유지하며 뛰는 것, 거리주는 목표한 거리를 뛰는 것이기에 성격이 다르다. 지속주는 본인 수준에 맞는 거리를 정해 지구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 뛰는 것이고, 거리주는 내가 뛸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정한 뒤 스피드나 감각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다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3일 전에는 육류는 자제하고, 콩이나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는 정도로 대체해야 한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평소보다 근육의 농도가 높아지기에 그만큼 에너지를 비축했다 달릴 때 쓸 수 있다. 대회 당일 역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되 너무 포만감 있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평소 먹는 양의 80% 정도가 적당하다. 시중에 나와있는 스포츠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오 늘 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달리자.

영화감독 : 박영훈(영화 : 중독,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대회만큼은
나를 위해
달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달려보자고...
그게 바로
역전 마라톤
이라고...

천식에 걸린 12세의 도시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치료 요양을 위해 남해의 작은 섬으로 향한다. 섬에 도착할 무렵 해안도로를 열심히 달리는 한 소년을 빛나는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소녀. 과거 역전 구간 마라톤으로 명성을 날렸던 배 선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간 갑작스럽게 소녀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바닷물 위에 유유히 떠 있는 소녀의 모자를 꺼내주려고 바닷물에 뛰어든 선장은 그만 뱃머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고 그만 사망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소년은 이 소녀의 가족을 한없이 원망하게 되고, 소녀 또한 그 사고로 인한 죄책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

수년 후, 고등학생이 된 소녀 (이하 나오코)는 자원봉사로 참여한 육상대회에서 이 소년 (이하 유스케) 과 우연히 재회한다. 오랜 후에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상처의 벽은 너무나 차갑고 어색하기만 하다. 대회도중 나오코는 갑작스럽게 유스케가 출전한 학교팀 구간 마라톤 급수 지원팀에 투입되어 유스케를 위해 물을 건네주지만, 유스케는 나오코가 힘겹게 건네준 물을 차갑게 뿌리치고 달리다가 무리한 페이스로 그만 경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게 된다.

배 사고로 사망한 유스케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육상부 감독은 그 이후 유스케를 친자식과 같이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사고 당시의 나오코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육상부 감독은 나오코에게 여름 방학 합숙 훈련기간 육상부 매니저로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나오코를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육상부 매니저로 합류한다. 육상부는 역전 구간 마라톤 대회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지만, 여전히 나오코와 유스케는 서로 가까워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육상부원들도 에이스인 유스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보이지 않은 마음의 갈등을 보인다. 그러던 중, 육상부 감독이 갑자기 쓰러져지게 되고,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된다. 잠시 흔들리고 있던 육상부원들은 이 시점을 계기로 스스로 훈련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은밀한 갈등을 보이던 육상부원들은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듭할수록 자기 자신의 입장만이 아닌 팀원으로서의 시각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마음속 응어리를 끄집어내며 서로에 대한 오해와 상처를 발산시키며 한 팀으로서의 스피릿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결국, 역전 구간 마라톤에 출전한 이들은 온갖 어려움을 딛고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위의 스토리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8년 작 일본 영화 '나오코' 란 작품입니다. 영화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아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마라톤 이란 소재를 통해 영화 속 인물들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내는 과정을 매우 간결하게 보여주는 성장 드라마입니다. 마라톤 주자 중 에이스인 유스케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레이스를 합니다. 오직 우승만이 그의 목표입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를 잃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유스케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사는 나오코도 빈틈없이 차가운 유스케에게 적극적으로 마음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부 팀 동료들 또한 자기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유스케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스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닫힌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오직 자신만의 달리기하고만 말없는 소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육상부에 잠시 합류한 나오코를 통해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유스케와 주변 인물들 그리고 나오코 자신도 점차 함 팀으로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스케의 차가운 마음의 벽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육상부에 나오코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이 팀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과연 혼자만 우월한 실력을 갖춘 유스케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우승자일까요?

육상부 감독은 대회 참가 직전 유스케에게 말합니다. 이번 대회만큼은 나를 위해 달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달려보자고... 그게 바로 역전 마라톤 이라고... 유스케는 말하죠... 이번 대회는 감독님을 위해 달리고 반드시 우승 할 거라고…….

처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달리겠다는 유스케의 마음가짐은 어느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성공적인 레이스를 위한 훈련에 매진하고 계신지요?

잠시 여러분이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를 떠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연으로 명확하게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마라톤의 세계로 입문하시고 끝없이 노력하여 최고의 선수가 되고자 마음속의 목표를 세운 순간 이미 최고의 마라토너입니다.

이번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선수분들은 모두 개개인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대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표를 매우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마라톤은 분명 기록으로 순위를 매김 하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무작정 최선을 다해 대회에 참가하는 목표만이 최선임을 강조하는 무성의한 언급은 성실하게 대회를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해 오신 선수분들에게 실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최고의 마라토너로 성장 할 수 있는 따스한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조금 더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봐 주시다면 지금 이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나 자신과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안 분들을 한 번씩 마음속에 그려봄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길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만큼은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를 위해 달리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 달려보자고~~

영화 속 대사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로 모여 위대한 팀 레이스의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대회기간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빛 좋은 날에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우승

우승을 우리회 것!

코오롱 소셜미디어 대학생 서포터즈 김자영

마라톤계의 엄친아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잘생긴 얼굴과 월등한 다리 길이, 그리고 타고난 달리기 실력까지. 단양고 선수들을 마주하고 든 첫 생각이었다. 사실 그들은 지난해 열린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 우승자들이다. 작년 우승에 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우승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중2병을 넘은 고3병인가 하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도 잠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이들의 당당한 모습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끈기의 승부사였다.

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단양고 선수들은 내 예상 밖의 답변을 했다. 나는 부모님을 생각한다든지, 뭔가를 잊기 위해 뛴다든지 같은 드라마에서 본 듯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단양고 학생들의 대답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했다.

"초 수를 맞춰야겠다. 바퀴 수 마다 초 수를 더 줄여야지.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이에요. 경기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어느 대회에서도 우승을 바라본다는 그들이 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단양고 마라톤팀은 선후배 사이의 팀워크가 좋다. 옆에서 지켜보니 훈련할 때는 묵묵히 서로를 끌어주고, 쉬는 시간에는 누가 선배이고 누가 후배인지 모를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 따로 없었다.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니 우승을 거머쥐지 않을 수 있으랴.

단양고 선수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데는 학교의 든든한 지원도 한몫했다. 선수들은 학교의 지원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뛸 수 있고, 그것이 실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점점 잘 뛰는 선수들이 많아지니 훈련도 재미있다고 한다.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훈련강도가 높아져 힘들기도 하고, 비가 와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이 좋다고 내게 슬며시 이야기했지만, 훈련할 때 만큼은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선수들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까? 선수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거리가 늘어날 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다고 한다. 매 순간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버틸 수 있었다. 단양고 선수들은 단순히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그들이 해내지 못할 일이 있을까? 이들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국내 대회를 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같은 세계대회에 나가 1등을 하는 것이다. 직접 선수들을 만나보니 그 꿈이 그저 꿈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렇게 잘생기고, 욕심도 많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꿈을 이루고 멋진 스포츠 스타가 될 것이다.

단양고 마라톤팀 선수들은 이번 코오롱 구간마라톤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원한다.

"학교의 명예와, 후배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뛸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단양고등학교

학교를 만나다!

새로운 기록까지 남은 건 또 한 번의 우승! 우리가 해낼 거예요!

코오롱 소셜미디어 대학생 서포터즈 임수현

모처럼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던 날, 상큼한 그녀들을 만났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선수들에 한 번, 첫 만남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밝은 표정과 뜨거운 인사에 또 한 번 놀랐다. 짧은 몇 시간 동안이었지만 김천한일여고 선수들이 보여준 에너지와 열정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

김천한일여고 마라톤팀과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뮤직비디오와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내내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허물없이 어울리고, 장면을 연출할 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까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후배 사이의 완벽한 팀워크. 어쩌면 이것이 지난해 우승팀의 저력이 아닐까. 선수들은 작은 것까지 잊지 않고 챙겨주는 코칭스태프의 세심한 배려도 지금의 김천한일여고가 있게된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너무 뻔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마라톤 선수들에게 마라톤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다. 잠시 고민하던 선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한 것은 '친구'다. 그런데 그냥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다가도 때로는 얄밉기도 한 그런 친구! 생각해 보면 주변에 그런 친구가 한 둘 정도는 있다. 마음도 잘 통하고 좋은데 가끔은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얄밉기도 한 그런 친구 말이다. 수 년 간 트랙을 달려온 선수들에게 마라톤은 잘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노력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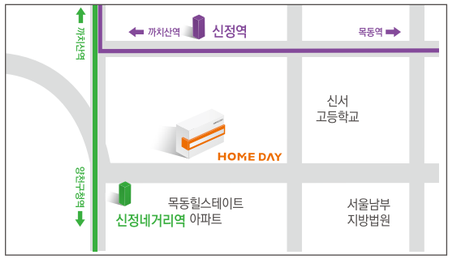
나는 지난해 21km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다. 정말 힘들었지만 완주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올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고3 선수들은 어떤 기분일까?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윤은지 선수는 1학년 때 첫 무대에서 섰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2구간을 달렸던 은지 선수는 시간을 단축하지 못해 몹시 걱정 했다. 하지만 선배들이 역전 우승을 만들어내자 미안함과 고마움에 펑펑 울며 좋아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3연패 달성을 꿈꿔왔다고. 윤은지 선수는 출전이 힘들 것을 알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객석에서 박수를 치기보다,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과연 그 기적이 이번 대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곧 대회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번 대회도 김천한일여고 선수들은 우승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가 경주에서 치러진 이래 최초로 3연패를 달성하는 학교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들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 그것 밖에 남지 않았다.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HOME DAY

목동점
영업시간 10:30 AM ~ 07:00 PM



홈데이 목동점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23
TEL 02. 2606. 9585
영업시간 10:30 AM~ 07:00 PM
홈페이지 www.homeday.com
블로그 blog.naver.com/home_day

실제 시공사례와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세요!

blog.naver.com/home_day

homeday_official

LOTTE CHEMICAL

www.lottechem.com

자세히 보면 화학이 보입니다!

Global leading chemical company 롯데케미칼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고등부 대회요강

2017.
3.25(sat)

/

09:30(start)

대 회 명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대회일시 2017년 3월 25일(토) 09:30 (출발)

대회장소 경주시내 공인 42.195km코스(남녀 동일), 6개 소구간
(Start지점 및 Finish지점 : 코오롱호텔 삼거리)

주 최 대한육상연맹, KBS, 조선일보, 코오롱

주 관 경상북도육상연맹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주시, 경주교육청, 경주경찰서

특별후원 (재)올림픽마라톤후원회

구 간

총 6구간 (전장 : 42.195km)
제 1구간 : 7.7km (코오롱호텔 삼거리~보문단지 힐튼호텔)
제 2구간 : 7.3km (보문단지 힐튼호텔~분황사)
제 3구간 : 6.7km (분황사~무열왕릉)
제 4구간 : 7.4km (무열왕릉~동궁과 월지)
제 5구간 : 4.9km (동궁과 월지~통일전)
제 6구간 : 8.195km (통일전~코오롱호텔 삼거리)

참가팀 자격

각 소속 단일 팀 (참가팀 제한 없음)

선수 자격

전국 남 · 여 고교 재학 선수로
1) 대한육상연맹에 2017년 등록을 필한 자
2) 등록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팀별 참가 인원

1) 임원 : 3명 (학교장, 감독, 코치)
2) 선수 : 7명 이하 (정선수 6명, 후보선수 1명 허용)
※ 기 신청된 참가선수 이외의 선수교체는 감독자회의 시 1명에 한해서 교체 가능
단, 후보 선수는 종전대로 1명 까지만 허용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 (http://www.kaaf.or.kr/PLAYER/)
※ 신청마감 : 2017. 2. 28(화) 18:00까지
※ 우편접수 및 팩스신청은 일절 받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사진 필히 첨부)

구비 서류

1) 참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 소정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과 각 시 · 도 육상경기 연맹 회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 선수단 각 개인별 증명사진 필히 첨부 (3cm×4cm)
3) 명시된 규격 및 형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온라인참가신청에 파일 첨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 회의, 개회식, 시상식

1) 감독자 회의

일시 : 2017년 3월 24일(금) 13:30
장소 : 코오롱호텔 영지B홀 (TEL : 054) 746-9001)
※ 선수표, 어깨띠 배분, 각 구간별 참가선수 명단 제출

2) 개회식

일시 : 2017년 3월 24일(금) 17:30 (16:30부터 리허설 : 선수단 전원 참석)
장소 : 코오롱호텔 오운홀 (필히 교기 지참)

3) 시상식 (폐회식)

일시 : 2017년 3월 25일(토) 14:30
장소 : 코오롱호텔 오운홀 (당일 선수단 점심은 코오롱에서 제공)

경기 운영

1) 경기 운영 세칙

- 개인 시간의 합계로 팀별 순위를 결정한다.
- 제 1 주자는 일제히 스타트한다.
- 제 2 주자부터는 선착순으로 중계한다.
- 경기 중 사고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선수는 그 구간의 최종선수와 동시 스타트하고 사고 구간의 기록은 최하위 선수의 기록에 10분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 선수 배치 : 각 구간별 선수 배치는 스타트 60분전 해당구간에 배치한다.

2) 각 구간별 참가선수 명단 제출

- 각 구간별 참가선수 명단은 감독자 회의 시 제출한다.
- 명단 제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할 수 없다.
  (단 발병으로 인한 변경여부는 반드시 본부 의무진의 진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경기당일 07:00까지

반주

반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며, 발각되었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시상, 특전 및 출전팀 지원

1) 시상

남 · 여 단체 우승 : 우승기, 상장, 우승배, 훈련지원금 1,000만원
남 · 여 단체 2위 : 상장, 트로피, 훈련지원금 500만원
남 · 여 단체 3위 : 상장, 트로피, 훈련지원금 300만원
남 · 여 단체 4위 ~ 6위 : 상장, 훈련지원금 100만원
남 · 여 개인 구간 우승 : 상장, 메달
남 · 여 우승교 감독 : 상패, 훈련연구비 100만원

※기록 포상금 남자 단체기록 2시간 5분 갱신 시 : 상장, 훈련지원금 5,000만원
여자 단체기록 2시간 25분 갱신 시 : 상장, 훈련지원금 5,000만원
남자 단체 한국마라톤 신기록 갱신 시 : 2,000만원 상품
(남자 : 2시간 7분 20초-이봉주 선수 / 여자기록 (권은주 선수)은 27회에 갱신)
남, 여 단체기록 갱신 시 : 상장, 훈련지원금 500만원
(대회 최고기록 : 남자 2시간 9분 35초 / 여자 2시간 25분 05초)
남, 여 구간 신기록 수립 선수 : 상장, 상품권 100만원

2) 특전

참가선수 중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의 경우 고교졸업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코오롱그룹 취업과 함께 현역선수로 활동 할 수 있음.

3) 참가팀 지원

- 왕복 교통비 (학교통장으로 입금) : 고속버스 요금 기준
  (소속 시 · 도청 소재지↔경주 / 단, 제주도 팀은 항공료 지급, 제주↔부산)
- 코오롱호텔 숙식제공 (2박 6식)
- 참가 선수 전원에게 경기복 및 트레이닝복 지급

부정 행위

1) 참가신청 선수 중 부정선수가 발견되면 해당 팀의 참가를 취소한다.
2) 대회종료 이후라도 부정행위 혹은 부정선수 기용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팀의 성적이 취소되며 훈련지원금을 몰수한다.
3) 1), 2) 항에 해당되는 선수, 지도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기 타

1) **참가팀의 유니폼(트레이닝복 및 경기복)은 코오롱에서 제작 · 배포하며, 참가선수단은 반드시 제공받은 유니폼(트레이닝복 및 경기복)을 착용하고 경기 및 개회식, 시상식에 임해야한다.**
2) 전년도 우승교는 개회식 시 우승기를 필히 반납한다.
3) 참가팀 대표는 3월 23일(목) 14:00~16:00에 대회본부를 방문하여 대회지 도착 사실을 알리고, 대회유니폼 및 기념품, 식권 등을 수령해야 한다. ※ 대회본부 : 코오롱호텔(경주시 마동 111-1)
4) 참가한 각 선수는 가슴과 등에 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5) 각 구간 선수의 중계용 바통은 어깨띠로 한다.
6) 응원차량은 일절 불허한다.(앰뷸런스, 선수회수차는 대회본부에서 운영)
7) 기타 사항은 감독자회의에서 결정한다.
8)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marathon.co.kr) 참조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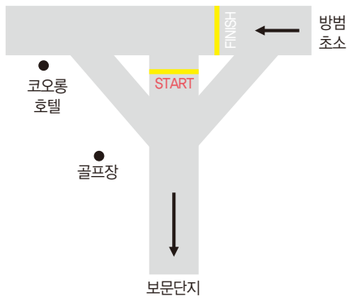
대회코스안내

[대회코스 구간별 고저도 그래픽]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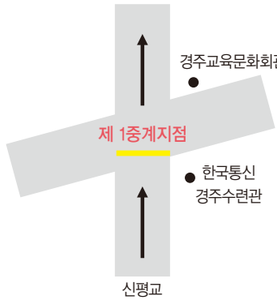
중계지점안내

Start



제1중계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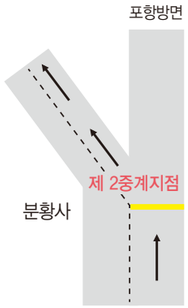
보문단지
힐튼호텔



제1구간 최고기록
- 남 21회 배문고 서행준 (22분 56초)
- 여 27회 상지여고 현서용 (25분 08초)

제2중계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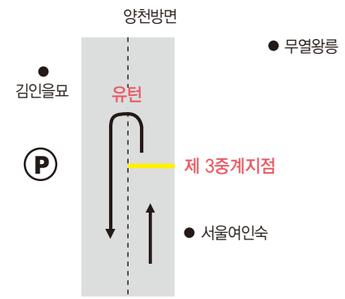
분황사



제2구간 최고기록
- 남 22회 배문고 전은회 (20분 39초)
- 여 24회 상지여고 원샛별 (23분 29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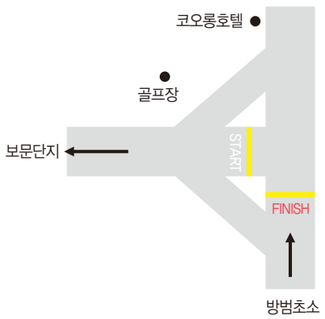
제3중계지점

무열왕릉
(유턴장소)



제3구간 최고기록
- 남 24회 배문고 강순 (19분 58초)
- 여 19회 경기체고 이연진 (22분 18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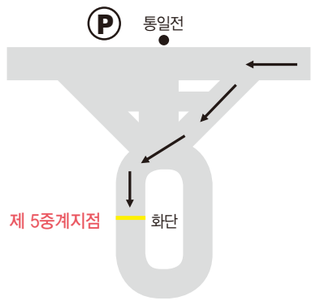
Finish



제6구간 최고기록
- 남 15회 목포기계공고 이두행 (25분 40초)
- 여 27회 상지여고 장한나 (28분 37초)

제5중계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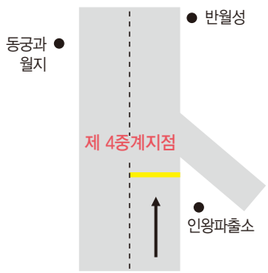
통일전



제5구간 최고기록
- 남 17회 배문고 이동진 (14분 44초)
- 여 28회 오류고 강다은 (17분 04초)

제4중계지점

동궁과 월지



제4구간 최고기록
- 남 23회 충북체고 김준수 (22분 05초)
- 여 24회 상지여고 신사흰 (25분 12초)

Still Steel?
KOLON PLASTICS!

플라스틱으로 만든 강하고 가벼운 자동차,
코오롱플라스틱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POM	KOCETAL®	**PA6, 66**	KOPA®
PBT	SPESIN®	**TPC-ET**	KOPEL®
LFT	KompoGTe®	**Composite**	KompoGTe®
3DP Filament	INKRAYON®		

Global Major Player
코오롱플라스틱(주)

www.kolonplastics.com
김천사업장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3길 64 (응명동) TEL: 054-420-8371 FAX: 054-420-8360
과천사업장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3 (별양동) 코오롱별관 10층 TEL: 02-3677-3602~8 FAX: 02-3677-3556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고등부 참가학교 소개

33rd HIGH SCHOOL 25team

♂ 배문고등학교 · 서울체육고등학교 · 부산체육고등학교 · 대구체육고등학교 · 광주체육고등학교
대전체육고등학교 · 울산고등학교 · 경기체육고등학교 · 강릉명륜고등학교 · 강원체육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 · 충북체육고등학교 · 충남체육고등학교 · 전남체육고등학교 · 경북체육고등학교
순심고등학교 · 도개고등학교 · 남녕고등학교 · 영주고등학교

♀ 경기체육고등학교 · 강릉여자고등학교 · 충북체육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교 · 경북체육고등학교 · 김천한일여자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

Since 1954

교장 : 김세환 | 감독 : 조남홍 | 코치 : 이동일

培文 陸上部는 1966年에 창단하여 작년에 육상부 창단 51주년이라는 반세기 동안 큰 업적을 남겼고 장거리 최고명문학교로서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장거리팀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다. 단체우승 120여회, 단체준우승 90여회, 개인우승300여회, 개인준우승200여회 등 그동안의 성적이 전국 최강의 전통을 말해주듯 현역 선수들도 선배들의 대를 이어 전국최고대회인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 (16회, 18회, (20회, 21회, 22회-3연패), 24회, 27회, 28회), 총8회우승, 준우승 7회를 하며 대회최다 우승교와 대회최초 3연패 학교로 기록을 남겼으며, 과천단축마라톤, 양구 단축마라톤, 통일역전마라톤등 전국대회 전체대회를 수차례 석권하였으며, 개인전에서도 종별, KBS배, 문관부, 전국체전등 트랙부문 5000M, 10KM, 모두3년 연속 우승하였다. 그리고 제4회 전국구간마라톤대회(대회신기록)으로 4연패를 하였다.

배문고등학교 육상부는 모든 선수들이 약50일동안 제주도에서 우승이라는 목표하나만을 두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으며, 지난 4년간 가져오지 못한 우승트로피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굳은 신념하나로 반드시 2017년도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서는 명가의 재건을 세우겠다고 다짐한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회	1985	2,19.27	5	18회	2002	2,13.15	2
2회	1986	2,17.59	9	19회	2003	2,17.09	7
3회	1987	2,24.32	16	20회	2004	2,11.00	1
4회	1988	2,19.30	12	21회	2005	2,09.39	1
5회	1989	2,17.13	7	22회	2006	2,10.37	1
6회	1990	2,16.33	2	23회	2007	2,11.43	2
7회	1991	2,15.56	3	24회	2008	2,13.02	1
8회	1992	2,16.42	5	25회	2009	2,17.55	6
9회	1993	2,18.36	6	26회	2010	2,14.27	4
10회	1994	2,18.46	4	27회	2011	2,12.15	1
11회	1995	2,22.43	7	28회	2012	2,13.12	1
14회	1998	2,14.17	2	29회	2013	2,15.22	2
15회	1999	2,16.18	6	30회	2014	2,20.55	5
16회	2000	2,14.32	1	31회	2015	2,21.19	4
17회	2001	2,11.44	3	32회	2016	2,24.31	9

❶ 조남홍 / 감독
❷ 이동일 / 코치
❸ 이주니 (3학년)
❹ 박정우 (3학년)
❺ 전재원 (2학년)
❻ 박주환 (2학년)
❼ 박영민 (2학년)
❽ 오성일 (1학년)
❾ 신용민 (1학년)

서울체육고등학교

Since 1971

교장 : 전용동 | 감독 : 조문서 | 코치 : 김천성

서울체육고등학교는 1971년 개교하여 그동안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2000년 서울국제 동아마라톤 대회 우승자 정남균 선수, 2013년 대국국제마라톤 대회 우승 김선애 선수, 2015 서울국제 동아마라톤 대회 우승 강수정 선수, 2016 전주 군산 마라톤 대회 우승 임예진 선수, 여자 마라톤 국가대표 수자원공사 소속 김도연 선수 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였으며, 2016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최병광, 이정은, 안슬기 선수가 서울체고 출신으로 출전하였다.

지난해 다소 부진하여 절치부심 이번 대회를 위하여 지난 2016년 가을 대관령 전국 고교 10km 대회에서 준우승하였으며 이를 발판 삼아 2017년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 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 백형훈 교감선생님의 부임과 전용동 교장선생님 이하 전교직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40일간의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아울러 3연패를 하여 우승기를 영구 보관하는 그날까지 노력과 열정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9회	1993	2,43.08	11	22회	2006	2,25.35	16
10회	1994	2,21.20	8	23회	2007	2,20.17	10
12회	1996	2,20.21	7	24회	2008	2,16.15	4
13회	1997	2,18.11	8	25회	2009	2,14.32	3
14회	1998	2,17.41	9	26회	2010	2,12.52	3
15회	1999	2,16.32	8	27회	2011	2,18.17	7
16회	2000	2,18.58	11	28회	2012	2:22:29	10
17회	2001	2,18.57	11	29회	2013	2,18.32	4
18회	2002	2,26.17	16	30회	2014	2,17.40	2
19회	2003	2,27.00	15	31회	2015	2,15.54	1
20회	2004	2,27.01	18	32회	2016	2,22.37	8
21회	2005	2,21.30	13				

❶ 조문서 / 감독
❷ 김천성 / 코치
❸ 전수환 (3학년)
❹ 곽종원 (3학년)
❺ 조희성 (3학년)
❻ 김태웅 (3학년)
❼ 최우형 (2학년)
❽ 이승준 (2학년)
❾ 권현준 (1학년)

부산체육고등학교

Since 1973

교장 : 홍선옥 | 감독 : 임현욱 | 코치 : 김준형

아름다운 항도 부산 영도 봉래산 기슭에 자리 잡은 부산체육고등학교는 1973년 체육학교로 개교 1976년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승격, 제39회 졸업을 거치면서 24개 종목에서 3,800여명의 엘리트선수를 배출한 부산체육의 산실로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전통의 중장거리 명문고등학교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홍선옥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수와 지도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와 넉넉한 품성을 바탕으로 명예를 존중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체육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학생과 교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산체육의 요람이다. 2017학년도 부산체육고등학교 육상 중장거리부는 지난겨울 혹독한 훈련을 소화해 전년도 보다 한 계단 상승의 목표를 이루려한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회	1985	2,21.39	11	18회	2002	2,21.38	9
2회	1986	2,15.44	7	19회	2003	2,20.30	10
3회	1987	2,14.24	2	20회	2004	2,22.46	12
4회	1988	2,24.59	21	21회	2005	2,21.38	14
5회	1989	2,21.41	16	22회	2006	2,18.55	6
6회	1990	2,21.18	13	23회	2007	2,19.40	8
7회	1991	2,26.36	15	24회	2008	2,22.19	13
8회	1992	2,25.40	17	25회	2009	2,20.00	8
9회	1993	2,32.57	23	26회	2010	2,20.06	9
10회	1994	2,21.50	9	27회	2011	2,23.27	13
12회	1996	2,27.35	14	28회	2012	2:27:58	14
13회	1997	2,23.41	16	29회	2013	2,23.27	10
14회	1998	2,24.54	15	30회	2014	2,34.03	14
16회	2000	2,19.38	10	31회	2015	2,30.14	12
17회	2001	2,16.19	8	32회	2016	2,28.15	14

❶ 임현욱 / 감독
❷ 김준형 / 코치
❸ 박재영 (3학년)
❹ 김영석 (3학년)
❺ 김주호 (3학년)
❻ 김동진 (3학년)
❼ 김수홍 (2학년)
❽ 김보성 (1학년)
❾ 윤준원 (1학년)

대구체육고등학교

Since 2003

교장 : 나수영 | 감독 : 김순형 | 코치 : 신제영

대구체육고등학교는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연속(2010년, 2011년, 2012년) 종합3위, 4위, 3위, 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금2, 은3, 동3 획득의 쾌거를 거두는 등 명실상부한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상에 서자"라는 교훈아래 감독, 코치, 학생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하루를 일생처럼 이라는 육상부의 구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자신에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참가는 2008년 첫 출전 후 6번째 참가로 남고부 종합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 전국대회에서 곽동욱 학생 800m 2위(16학년도 추계중 · 고육상대회), 이현우 학생 800m 1위(16학년도 소년체전), 김근형 학생 800m 1위(KBS전국육상대회), 박세민 학생 5km 3위(16학년도 예천도효자배마라톤대회) 등 중상위권 선수들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2회	2006	2,24.29	15	28회	2012	2,22.53	11
23회	2007	2,20.12	9	29회	2013	2,24.30	12
24회	2008	2,22.12	12	32회	2016	2,25.39	12
25회	2009	2,24.42	16				

❶ 김순형 / 감독
❷ 신제영 / 코치
❸ 강치원 (2학년)
❹ 이재영 (2학년)
❺ 이준서 (1학년)
❻ 곽동욱 (1학년)
❼ 이현우 (신입생)
❽ 박세민 (신입생)
❾ 김근형 (신입생)

광주체육고등학교

Since 1973

교장 : 김귀회 | 감독 : 조태성 | 코치 : 김영동

본교는 21세계를 주도할 체육인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1973년 개교 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체육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출전이 어려웠으나 2013년 제29회 대회부터 참가하여 꾸준히 기록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었던 훈련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이번 대회를 준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른 기량을 보이는 학생들로 팀이 구성되어 어느 때보다 좋은 기록이 예상됩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6회	1990	2,31.25	26	15회	1999	2,20.05	15
7회	1991	2,28.57	20	17회	2001	2,25.47	21
8회	1992	2,27.27	18	18회	2002	2,26.23	16
9회	1993	2,31.05	21	20회	2004	2,20.15	10
10회	1994	2,25.55	15	29회	2013	5구간기권	
11회	1995	2,24.38	9	30회	2014	2,39.49	15
12회	1996	2,25.26	11	31회	2015	2,34.12	15
13회	1997	2,20.36	14	32회	2016	2,31.14	17
14회	1998	2,27.52	18				

❶ 조태성 / 감독
❷ 김영동 / 코치
❸ 윤영석 (3학년)
❹ 김승민 (3학년)
❺ 채민기 (3학년)
❻ 박민수 (3학년)
❼ 추일우 (2학년)
❽ 이민권 (2학년)
❾ 이예찬 (1학년)

울산고등학교

Since 1954

교장 : 이승원 | 감독 : 최인석 | 코치 : 김성일

울산광역시 체육회 회장이신 "김기현" 울산시장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본교 "안태원" 전 교장선생님과 "이승원" 현 교장선생님의 육상부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에서 당시 1학년이었든 김건오. 김민서 선수가 남자고등부 10km 로드 레이스에서 7.8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성일 코치의 열정적인 리라 기대합니다. 김건오, 강민서 선수는 아직 저학년인데다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2~3년 밖에 안되어서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장차 한국 마라톤이 부활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끊임없는 주위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자의 열정이 결합해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대회에 참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올해는 6위권을 목표에 두고 대회에 임할 것이며 내년 대회는 3위권 이상의 성적을 목표합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회	1985	2,20.51	10	11회	1995	2,23.41	8
2회	1986	2,19.08	14	12회	1996	2,26.19	12
3회	1987	2,28.10	24	14회	1998	2,33.35	21
4회	1988	2,24.34	20	15회	1999	2,31.46	22
5회	1989	2,16.42	5	18회	2002	2,38.18	22
6회	1990	2,18.42	8	23회	2007	2,57.57	19
7회	1991	2,22.32	12	27회	2011	2,28.59	15
8회	1992	2,24.46	15	29회	2013	2,33.03	16
9회	1993	2,20.05	8	30회	2014	5구간 기권	
10회	1994	2,22.46	11				

❶ 최인석 / 감독
❷ 김성일 / 코치
❸ 김성완 (3학년)
❹ 김건오 (2학년)
❺ 김민서 (2학년)
❻ 이경렬 (2학년)
❼ 이동근 (1학년)
❽ 이효민 (1학년)
❾ 조환희 (1학년)

대전체육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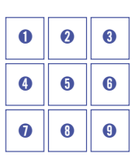
Since 1972

교장 : 김종성 | 감독 : 박호진 | 코치 : 김순화

대전체육고등학교는 육상 중 · 장거리부를 비롯한 19개부 전교생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꿈과 희망 · 도전을 실현시켜주는 육상 장거리 꿈나무 선수들의 등용문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회인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본교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 하였으며, 감독 · 코치 선생님의 마음을 설레 이게 하는 본 대회에 본교는 제1회부터 참가하였으며 항상 우승을 목표로 출전에 임하고 있다.

3학년 민선홍, 2학년 이영화, 김시완, 강민혁, 박우석, 1학년 유용선, 이영환 등의 선수들은 김순화 코치 선생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아래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였으며, 그동안의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배들이 일궈놓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 대전체육고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목표로 대회에 출전하였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회	1985	2,19.36	6	17회	2001	2,16.07	7
2회	1986	2,15.29	5	18회	2002	2,17.56	4
3회	1987	2,16.37	5	19회	2003	2,16.24	4
4회	1988	2,16.53	5	20회	2004	2,17.02	7
5회	1989	2,15.52	2	21회	2005	2,16.32	5
6회	1990	2,17.07	4	22회	2006	2,15.46	3
8회	1992	2,21.23	11	23회	2007	2,17.27	7
10회	1994	2,22.39	10	24회	2008	2,22.08	11
11회	1995	2,20.29	5	25회	2009	2,21.24	14
12회	1996	2,21.51	9	28회	2012	2,29.18	15
13회	1997	2,18.17	9	29회	2013	2,26.49	14
14회	1998	2,18.36	11	30회	2014	2,27.36	11
15회	1999	2,15.03	4	31회	2015	2,31.38	14
16회	2000	2,16.04	2	32회	2016	2,28.23	15



❶ 박호진 / 감독
❷ 김순화 / 코치
❸ 강민혁 (3학년)
❹ 김시완 (3학년)
❺ 박우석 (3학년)
❻ 이영화 (3학년)
❼ 이정빈 (2학년)
❽ 이영환 (2학년)
❾ 이태환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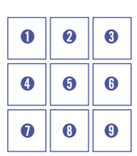
경기체육고등학교

Since 1995

교장 : 신동원 | 감독 : 장신향 | 코치 : 전휘성

경기체육고등학교는 1995년 창단한 이래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1998년 제 1회 전국 과천배 단축마라톤과 2003년 제19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남, 여)동반 종합우승등 여러대회에서 우승하며 육상장거리의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잠시 침체기를 겪었지만 육상장거리 출신이신 신동원교장선생님 취임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우수한 신입생들을 영입과 동시에 해남에서 장기간의 전지훈련을 체격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3회	1997	2,20.21	13	23회	2007	2,15.16	4
14회	1998	2,16.45	7	24회	2008	2,18.29	7
15회	1999	2,13.16	1	25회	2009	2,17.19	5
16회	2000	2,17.20	5	26회	2010	2,21.07	11
17회	2001	2,15.57	5	28회	2012	2:25:49	13
18회	2002	2,15.43	2	29회	2013	2,18.57	5
19회	2003	2,09.47	1	30회	2014	2,25.28	8
20회	2004	2,14.15	4	31회	2015	2,22.06	8
21회	2005	2,18.02	7	32회	2016	2,20.08	4
22회	2006	2,19.31	7				



❶ 장신향 / 감독
❷ 전휘성 / 코치
❸ 이건희 (3학년)
❹ 김선우 (3학년)
❺ 최진혁 (2학년)
❻ 박종학 (2학년)
❼ 노용진 (2학년)
❽ 윤금성 (2학년)
❾ 김연준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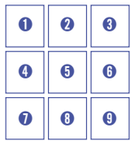
강릉명륜고등학교

Since 1964

교장 : 김창환 | 감독 : 김덕기 | 코치 : 김이용

1964년 인문계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知,仁 ,勇의 교훈 아래 많은 인재를 양성하며 학문연구에 전력해 오고 있는 우리 교는 1978년에 육상부를 창단하여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 영웅 황영조(24회)선수를 비롯한 김연화, 김이용, 이연락, 김청용, 오세정, 김대호선수 등 다수의 국가대표와 우수선수를 배출한 육상의 명문 학교로 제2의 도약을 위해 동문과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올 해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목표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3회	1987	2,26.22	19	23회	2007	2,25.51	16
6회	1990	2,20.35	10	24회	2008	2,22.04	10
7회	1991	2,20.32	11	25회	2009	2,21.10	13
9회	1993	2,26.23	15	26회	2010	2,23.25	14
13회	1997	2,17.45	7	27회	2011	2,17.45	6
14회	1998	2,21.41	13	28회	2012	2,19.07	5
16회	2000	2,23.48	14	29회	2013	2,20.09	7
17회	2001	2,20.52	11	30회	2014	2,27.15	10
20회	2004	2,26.28	17	31회	2015	2,22.04	7
22회	2006	2,23.57	13	32회	2016	2,16.37	2



❶ 김덕기 / 감독
❷ 김이용 / 코치
❸ 엄대식 (3학년)
❹ 임영균 (3학년)
❺ 김승현 (2학년)
❻ 노현우 (2학년)
❼ 이현서 (1학년)
❽ 오기택 (1학년)
❾ 장윤석 (1학년)

강원체육고등학교

Since 1992

교장 : 김웅일 | 감독 : 조종묵 | 코치 : 정만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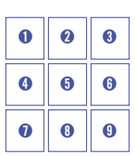
강원체육고등학교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자리 잡은 강원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 2012년 송암동 스포츠타운에 새 둥지를 틀어 전국의 체육고등학교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최신식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2년 3월 2일 개교하여 현재까지 20여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행복한 미래를 창조할 인성 바른 체육인 육성을 슬로건으로 하여 학생들 스스로 뜻을 세우고 노력한다는「立志」의 교훈 아래 강원 학교 체육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상, 수영, 체조, 사격 등 총 17개의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교사와 감독, 지도자의 단합, 학생들의 열정으로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2016년에는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2016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15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8개를 획득하며 개교 이래 전국체전에서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글로벌 체육인재로 거듭난다는 자부심과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학교 출전 선수들은 지난겨울 살을 에는 추운 날씨에도 추위를 이겨내며 훈련을 소화하였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기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근성은 강원체육고등학교와 강원도 체육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일 것입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32회	2016	2,24.48	10				



❶ 조종묵 / 감독
❷ 정만용 / 코치
❸ 라경민 (3학년)
❹ 라경진 (3학년)
❺ 이광표 (2학년)
❻ 임승민 (2학년)
❼ 김승유 (2학년)
❽ 진기준 (1학년)
❾ 이상욱 (3학년)

단양고등학교

Since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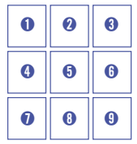
교장 : 권창호 | 감독 : 최동규 | 코치 : 안성영

내륙관광의 인프라구축이 가장 뛰어난 단양, 수려한 산과 강, 아름다운 계곡과 호수가 있는 단양, 관광자원의 무궁무진한 단양에서 남한강과 양백산의 수려한 정치에 둘러싸인 풍광좋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단양고등학교는1965. 3. 15일 개교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모델학교, 2012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 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2013년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었으며 자신을 디자인하는 학생, 진로를 디자인하는 교사,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교라는 구호아래 나라의 빛이 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숙형 명품 고등학교 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이지만 지, 덕, 체를 갖춘 육상선수를 육성하고자 2002년 중, 장거리선수를 영입 육상부를 창단하였으며 , 본교 권창호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5000m와 10km경기에서 각각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서 단체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올렸습니다.
선수구성은 2016년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4구간 1위를한 2학년김홍곤 선수와,이광철 황재범 1학년 허고훈 임신순 황인규 신입생 심규태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팀 선수 전원이 7명의 작은 인원의 선수로 구성되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또다시 상위입상을 한다는 목표아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8회	2002	2,29.24	18	30회	2014	2,16.46	1
28회	2012	2,18.55	4	31회	2015	2,18.23	2
29회	2013	2,21.22	9	32회	2016	2,13.19	1



❶ 최동규 / 감독
❷ 안성영 / 코치
❸ 김홍곤 (2학년)
❹ 이광철 (2학년)
❺ 황재범 (2학년)
❻ 허고훈 (1학년)
❼ 황인규 (1학년)
❽ 임신순 (1학년)
❾ 심규태 (입학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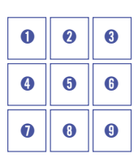
충북체육고등학교

Since 1991

교장 : 이창수 | 감독 : 윤종호 | 코치 : 홍인표

충북체육고등학교는 1991년 개교 이래 전통적으로 중장거리 종목에 강한 학교로서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한 명문교입니다. 특히 2008년 제39회 대통령배 전국통일마라톤대회 단일 팀으로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제11회 과천전국고교10km대회 우승과 제2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남자부 우승을 하였고 김중환, 김종윤, 홍진표 선수를 중심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열심히 하였으며 선수들이 고른 기량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 상위권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7회	1991	2,33.10	24	19회	2003	2,15.02	2
8회	1992	2,28.33	19	20회	2004	2,11.47	2
9회	1993	2,19.50	7	21회	2005	2,13.23	2
10회	1994	2,16.42	2	22회	2006	2,11.41	2
11회	1995	2,14.25	2	23회	2007	2,09.35	1
12회	1996	2,14.55	1	24회	2008	2,13.20	2
13회	1997	2,16.16	6	25회	2009	2,15.15	4
14회	1998	2,15.41	5	26회	2010	2,15.50	5
15회	1999	2,16.38	9	27회	2011	2,15.57	4
16회	2000	2,18.02	7	28회	2012	2,21.26	9
17회	2001	2,10.37	1	31회	2015	2,23.15	9
18회	2002	2,16.43	3	32회	2016	2,20.43	5



❶ 윤종호 / 감독
❷ 홍인표 / 코치
❸ 김중환 (3학년)
❹ 김진기 (3학년)
❺ 정태민 (3학년)
❻ 김종윤 (2학년)
❼ 홍진표 (1학년)
❽ 남대현 (1학년)
❾ 조경현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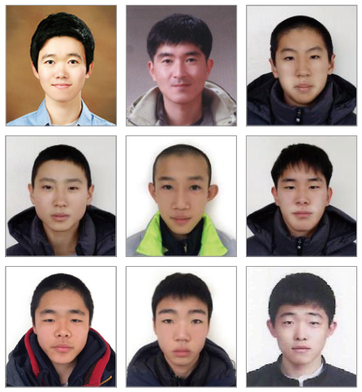
충남체육고등학교

Since 1990

교장 : 최영락 | 감독 : 최선호 | 코치 : 복준수

충남체육고등학교는 1990년에 개교,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체육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오롱 8회, 9회에서 남자부 준우승을 하였고, 또한 광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자인 지영준 선수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하였고. 2015년 여고부 1.2구간 1위를 하고도 3,4,5구간 선수의 기량이 부족하여 아쉽게 2위를 한 팀입니다. 현재 남학생 14명, 여학생 6명 총 20명의 선수로 구슬땀을 흘리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코오롱 대회 준비를 위해 최영락 교장선생님, 손성윤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충분한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기량 또한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남자부는 2학년 김성진 1학년 임효철 선수를 주축으로 고른 선수층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대회에서 남자부 3위권을 여자부는 중위권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하였고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8회	1992	2.15.18	2	21회	2005	2.20.02	9
9회	1993	2.15.56	1	22회	2006	2.21.57	10
10회	1994	2.23.24	12	23회	2007	2.21.41	12
11회	1995	2.20.11	4	24회	2008	2.20.56	8
12회	1996	2.19.35	6	25회	2009	2.20.34	11
13회	1997	2.14.32	4	26회	2010	2.20.58	10
14회	1998	2.15.13	3	27회	2011	2.21.38	11
15회	1999	2.16.27	7	28회	2012	2:24:33	12
16회	2000	2.17.12	4	29회	2013	2.20.41	8
17회	2001	2.22.25	14	30회	2014	2.21.48	6
18회	2002	2.22.24	11	31회	2015	2.26.59	10
19회	2003	2.22.02	13	32회	2016	2.25.19	11
20회	2004	2.21.26	11				

❶ 최선호 / 감독
❷ 복준수 / 코치
❸ 김성진 (2학년)
❹ 김준섭 (2학년)
❺ 임효철 (1학년)
❻ 정규원 (2학년)
❼ 안종빈 (1학년)
❽ 고요한 (1학년)
❾ 안종화 (2학년)

전남체육고등학교

Since 2003

교장 : 염세철 | 감독 : 박영배 | 코치 : 김당우

전남체육고등학교 중 · 장거리는 03년 개교와 함께 태동하여 2005년 제21회 대회에 김민, 김효수 선수를 주축으로 처녀 출전하여 종합 4위를 차지하여 국내 중 · 장거리 명문 고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첫 대회를 마치고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 체육고등학교 트랙 필드 종목은 개교 이후 육상 명문학교로 자리 잡아 전국을 호령하고 있으나 열악한 전라남도의 학생 수 감소와 선수 감소로 많은 선수로 팀을 이루는 구간마라톤에 어려움을 겪어 2011년 27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에 5년 만에 출전 종합 6위에 오르고 제97 회전국체육대회 3000msc에서 최재경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체육중고 중장거리부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탁원한 선수는 없지만 우리 선수들은 알찬 겨울 훈련으로 여섯 명 모두가 고른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5위권을 예상하며 박명배 감독, 김당우 지도자의 지도력과 출전 선수들의 불굴의 투지로 깊은 감동을 주는 레이스를 할 것입니다.

도전자의 정신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회	1985	2.24.21	17	21회	2005	2.16.28	4
2회	1986	2.17.45	8	22회	2006	2.21.57	11
3회	1987	2.18.23	8	26회	2010	2.19.24	8
4회	1988	2.20.41	16	27회	2011	2.22.02	12
5회	1989	2.19.03	14	32회	2016	2.20.44	6

❶ 박영배 / 감독
❷ 김당우 / 코치
❸ 이기성 (3학년)
❹ 김호연 (2학년)
❺ 전도현 (2학년)
❻ 최세훈 (1학년)
❼ 조민혁 (1학년)
❽ 김진우 (1학년)
❾ 정승준 (1학년)

경북체육고등학교

Since 1976

교장 : 양재영 | 감독 : 이언석 | 코치 : 이재남

중, 장거리 명문 고교로서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최다 우승팀으로 25회 우승, 26회 준우승, 27회 준우승, 28회 3위, 29회 3위, 30회 4위, 31회 3위 32회 3위를 하였으나, 항상 우승후보로써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신입생 입학과 아울러 금년 동계훈련을 통해 전력이 많이 향상 되었으며, 금년에는 기필코 우승을 목표로 필승의 각오로 멋진 레이스를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교 국가대표 출신으로는 백승도, 김순형, 권영조, 육근태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한 명문 고교라 할 수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회	1985	2.14.21	1	17회	2001	2.13.52	3
2회	1986	2.13.31	2	18회	2002	2.21.59	10
3회	1987	2.16.55	6	19회	2003	2.17.07	6
4회	1988	2.13.57	2	20회	2004	2.16.13	6
5회	1989	2.16.32	4	21회	2005	2.15.33	3
6회	1990	2.17.26	6	22회	2006	2.20.19	8
7회	1991	2.15.50	2	23회	2007	2.16.03	5
8회	1992	2.14.55	1	24회	2008	2.17.58	6
9회	1993	2.17.44	2	25회	2009	2.12.36	1
10회	1994	2.16.35	1	26회	2010	2.12.30	2
11회	1995	2.16.03	3	27회	2011	2.12.55	2
12회	1996	2.15.39	2	28회	2012	2.17.38	3
13회	1997	2.13.15	1	29회	2013	2.18.06	3
14회	1998	2.14.05	1	30회	2014	2.20.02	4
15회	1999	2.15.15	5	31회	2015	2.18.51	3
16회	2000	2.16.27	3	32회	2016	2.17.26	3

❶ 이언석 / 감독
❷ 이재남 / 코치
❸ 김세종 (3학년)
❹ 장성호 (3학년)
❺ 최유건 (3학년)
❻ 이승현 (3학년)
❼ 차성일 (3학년)
❽ 전성진 (2학년)
❾ 우현민 (1학년)

순심고등학교

Since 1936

교장 : 임재균 | 감독 : 진덕언 | 코치 : 주인영

80년 역사를 가진 본교는 1995년 진덕언 감독(선생님)으로부터 육상부(중.장거리)로 재창단하였으며, 현재 명문교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본교 육상부는 진덕언 감독(선생님)과 본교 졸업생인 주인영 코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로 학생선수들이 운동뿐 아니라 학업에도 성실히 임하여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본 대회를 1996년 제13회 대회를 처음 출전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우승 2회, 준우승 2회, 3위 2회 및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구간마라톤대회 8회,9회대회 연속 우승을 하였으며, 대통령기 통일역전마라톤대회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여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2회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제주도에서 동계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마쳤으며 2학년 박무영를 주축으로 올해도 본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3회	1997	2.19.56	11	24회	2008	2.15.08	3
14회	1998	2.16.09	6	25회	2009	2.14.10	2
15회	1999	2.19.57	13	26회	2010	2.11.13	1
16회	2000	2.28.18	19	27회	2011	2.14.07	3
18회	2002	2.31.59	21	28회	2012	2.15.24	2
19회	2003	2.17.23	8	29회	2013	2.13.05	1
20회	2004	2.14.35	5	30회	2014	2.18.08	3
21회	2005	2.16.45	6	31회	2015	2.21.21	5
22회	2006	2.17.33	5	32회	2016	2.30.36	16
23회	2007	2.16.30	6				

❶ 진덕언 / 감독
❷ 주인영 / 코치
❸ 박무영 (2학년)
❹ 임제명 (2학년)
❺ 박찬우 (2학년)
❻ 박정호 (3학년)
❼ 김현일 (3학년)
❽ 장현우 (3학년)
❾ 김종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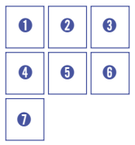
도개고등학교

Since 1949

교장 : 황태숙 | 감독 : 한상갑

황태숙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여 학생 역량 강화와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교육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육상의 마라톤을 2015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 고등학교는 1949년 개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교훈은 '성실한 사람이 되자, 협동하는 생활을 하자, 창조의 힘을 기르자'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장미입니다.



❶ 한상갑 / 감독
❷ 홍지유 (3학년)
❸ 최정원 (3학년)
❹ 백인호 (3학년)
❺ 고재홍 (3학년)
❻ 최승진 (2학년)
❼ 신민철 (3학년)

남녕고등학교

Since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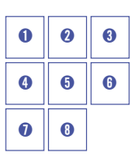
교장 : 양영수 | 감독 : 고민화 | 코치 : 강태식

1986년에 개교한 제주시 평균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제주도에는 체육 중.고등학교가 없고, 체육과를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 체육학급 3학급 설치인가를 받아 1995년 3월 1일부터 체육학급 신입생을 받기 시작 17년의 역사는 짧으나 작년에는 전국체전에서 제주도 메달 87개 중 12개를 따낼 정도로 제주도 체육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는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6학급 1500여 명의 학생과 12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육학급은 3학급이며 체육 종목은 육상을 비롯하여 유도, 태권도, 레슬링, 복싱, 볼링, 체조, 역도, 수영, 씨름 10개 종목이며 육상부 인원은 18명으로서 동계훈련을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마무리 훈련을 통해 올해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 네 번 출전하며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해 이번 대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위 성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종필, 허남준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6회	2010	2.44.41	16	30회	2014	2.32.11	13
27회	2011	2.43.14	16	31회	2015	6구간기권	
28회	2012	2.38.21	18	32회	2016	2.27.10	13
29회	2013	6구간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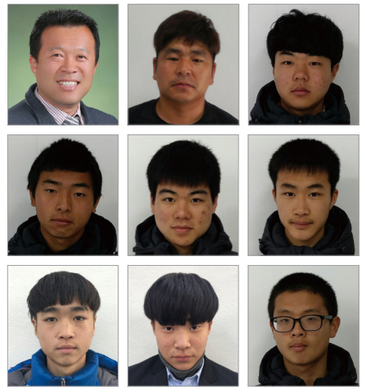
❶ 고민화 / 감독
❷ 강태식 / 코치
❸ 강종필 (2학년)
❹ 강영범 (2학년)
❺ 허남준 (1학년)
❻ 김광현 (1학년)
❼ 박지민 (신입생)
❽ 오상철 (신입생)

영주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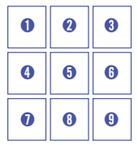
Since 1995

교장 : 현태권 | 감독 : 우금석 | 코치 : 양순규

有志竟成(유지경성) :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 교훈아래 강인한 체력 가추고 멋진 용모와 품행이 바른 예절인 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건학 이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육상부 창단을 하였으며, 2016년도에 첫 출전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두 번째 참가하는 대회로써 다른 출전 팀에 비해 경기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올해 동계 강화훈련을 선수들이 착실히 소화 하여 단체상위 입상은 어렵지만 소 구간 한 구간이라도 상위 경기력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32회	2016		기권



❶ 우금석 / 감독
❷ 양순규 / 코치
❸ 강동희 (3학년)
❹ 김재용 (3학년)
❺ 한재완 (3학년)
❻ 유원세 (2학년)
❼ 김태민 (1학년)
❽ 윤태현 (1학년)
❾ 강정범 (2학년)

경기체육고등학교

Since 1995

교장 : 신동원 | 감독 : 장신향 | 코치 : 성창현

경기체육고등학교는 1995년 창단한 이래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1998년 제 1회 전국 과천배 단축마라톤과 2003년 제19회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남, 여)동반 종합우승등 여러대회에서 우승하며 육상장거리의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잠시 침체기를 겪었지만 육상장거리 출신이신 신동원교장선생님 취임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우수한 신입생들을 영입과 동시에 해남에서 장기간의 전지훈련을 체격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4회	1998	2,43.46	6	24회	2008	2,44.38	11
15회	1999	2,41.27	4	25회	2009	2,40.07	7
16회	2000	2,34.47	2	26회	2010	2,41.11	8
17회	2001	2,49.18	10	27회	2011	2,37.10	4
18회	2002	2,36.53	3	28회	2012	2,43.36	4
19회	2003	2,32.38	1	29회	2013	2,43.33	4
20회	2004	2,46.33	7	30회	2014	2,45.32	3
22회	2006	2,43.52	9	31회	2015	2,47.56	5
23회	2007	0,29.37	기권	32회	2016	2,42.15	3

❶ 장신향 / 감독
❷ 성창현 / 코치
❸ 김스라 (3학년)
❹ 최서희 (3학년)
❺ 임지수 (2학년)
❻ 이정은 (2학년)
❼ 허경진 (1학년)
❽ 안주희 (1학년)
❾ 서동린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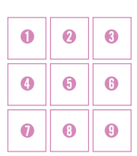
강릉여자고등학교

Since 1940

교장 : 최영규 | 감독 : 박춘식 | 코치 : 박진숙

본교는 1940년에 개교하여 올해도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거듭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제29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를 처음 출전으로 5년 연속 이번시합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지도자 열정적인 의지로 강한 동계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중장거리 육성학교로 거듭 태어나고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따뜻하고 열정적인 의지로 혼연일체가 되어 거듭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9회	2013	3,07.10	7	31회	2015	3,03.46	7
30회	2014	2,50.53	6	32회	2016	2,55.32	6



❶ 박춘식 / 감독
❷ 박진숙 / 코치
❸ 강서연 (3학년)
❹ 천민지 (3학년)
❺ 한지혜 (2학년)
❻ 전윤서 (2학년)
❼ 김민정 (1학년)
❽ 최미지 (1학년)
❾ 이미진 (1학년)

충북체육고등학교

Since 1991

교장 : 이창수 | 감독 : 윤종호 | 코치 : 홍인표

충북체육고등학교는 1991년 개교이래 엘리트 체육교육의 명문고로 1996년 제12회 대회에서 남 · 여 가동반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제13회 대회에서는 여자부가 우승, 대회 2연패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2016년 제32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지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체력훈련과 지구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 조은아, 이세은 선수를 중심으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7회	1991	2,45.03	9	18회	2002	2,47.17	4
8회	1992	2,46.03	6	19회	2003	2,53.30	8
9회	1993	2,51.54	10	20회	2004	2,44.36	5
10회	1994	2,43.57	8	21회	2005	1,19.43	기권
11회	1995	2,44.09	6	22회	2006	2,36.43	2
12회	1996	2,37.28	1	23회	2007	2,40.06	6
13회	1997	2,31.32	1	24회	2008	2,35.50	4
14회	1998	2,46.26	7	25회	2009	2,39.22	6
15회	1999	0,50.45	10	26회	2010	2,40.46	5
16회	2000	2,36.41	3	31회	2015	2,46.52	4
17회	2001	0,36.36	4	32회	2016	2,41.50	2

❶ 윤종호 / 감독
❷ 홍인표 / 코치
❸ 조은아 (2학년)
❹ 이세은 (2학년)
❺ 김승혜 (2학년)
❻ 정민주 (1학년)
❼ 이가연 (1학년)
❽ 손성지 (2학년)
❾ 임예림 (3학년)

충남체육고등학교

Since 1990

교장 : 최영락 | 감독 : 최선호 | 코치 : 복준수

충남체육고등학교는 1990년에 개교,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체육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오롱 8회, 9회에서 남자부 준우승을 하였고, 또한 광저우 아시안게임 우승 자인 지영준 선수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하였고. 2015년 여고부 1.2구간 1위를 하고도 3,4,5구간 선수의 기량이 부족하여 아쉽게 2위를 한 팀입니다. 현재 남학생 14명, 여학생 6명 총 20명의 선수로 구슬땀을 흘리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코오롱 대회 준비를 위해 최영락 교장선생님, 손성윤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충분한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기량 또한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남자부는 2학년 김성진 1학년 임효철 선수를 주축으로 고른 선수층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대회에서 남자부 3위권을 여자부는 중위권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하였고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8회	1992	2,42.30	4	24회	2008	2,41.16	6
9회	1993	2,51.09	9	25회	2009	2,45.24	8
10회	1994	2,41.51	6	26회	2010	2,41.01	7
11회	1995	2,44.04	5	29회	2013	2,42.22	3
12회	1996	2,43.17	4	30회	2014	2,47.45	4
20회	2004	2,55.19	10	31회	2015	2,43.08	2
22회	2006	2,49.39	12	32회	2016	3,01.35	7
23회	2007	2,43.09	8				

❶ 최선호 / 감독
❷ 복준수 / 코치
❸ 이혜주 (3학년)
❹ 윤하늘 (2학년)
❺ 이상미 (1학년)
❻ 최아혜 (3학년)
❼ 윤승태 (2학년)
❽ 주서윤 (2학년)

경북체육고등학교

Since 1976

교장 : 양재영 | 감독 : 김조성 | 코치 : 이재남

중, 장거리 명문 고교로서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참가하였으나, 항상 우승후보로써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신입생 입학과 아울러 금년 동계훈련을 통해 전력이 많이 향상 되었으며, 금년에는 기필코 우승을 목표로 필승의 각오로 멋진 레이스를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32회	2016	2.51.36	5

❶ 김조성 / 감독
❷ 이재남 / 코치
❸ 김진주 (2학년)
❹ 권다혜 (2학년)
❺ 정의지 (2학년)
❻ 서수연 (2학년)
❼ 강화랑 (1학년)
❽ 권순현 (1학년)
❾ 양덕경 (1학년)

한일여자고등학교

Since 1972

교장 : 박기하 | 감독 : 송정헌 | 코치 : 김은정

1972년 개교하여 이신호 재단 이사장님, 박기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전폭적 관심과 후원에 2009년 한일여고 육상부를 창단하였습니다. 2011년에 처음 출전한 제27회 대회에서는 7위를 하였고, 2015년 제31회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마라톤의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일본 오키나와 20일, 경남 고성에서 30일간의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하였고, 특히 3학년 박명선,이유림,김소윤, 2학년 이현정 선수들은 2016년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과 동시에 경주대회에서는 하지 못한 대회 3연패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승을 발판삼아 대한민국 고교마라톤의 명문, 최강자임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7회	2011	2.44.04	7	30회	2014	2.58.09	8
28회	2012		기권	31회	2015	2.39.03	1
29회	2013		4구간기권	32회	2016	2.36.39	1

❶ 송정헌 / 감독
❷ 김은정 / 코치
❸ 김소윤 (3학년)
❹ 박명선 (3학년)
❺ 이유림 (3학년)
❻ 이현정 (2학년)
❼ 권하희 (1학년)
❽ 박혜선 (1학년)
❾ 양지혜 (1학년)

KOLON GLOBAL CORPORATION

Global Biz. Organizer

상상의 한계를 넘어
고객의 미래가치를 실현해가는 코오롱글로벌
모든것을 새롭고 다르게 변화시켜가는 기업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더 큰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Sustainability Management

www.kolonglobal.com
과천본사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Tel.02)3677-3114 Fax.02)3677-5601
송도사옥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테크노파크 IT센터 Tel.032)420-9111 Fax.032)420-9119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중등부 대회요강

2017. 3.25(sat)

/ 09:35(start)

대 회 명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대회일시 2017년 3월 25일(토) 09:35 (출발)

대회장소 경주시내 공인 15km코스 – 남녀 동일
(Start지점 및 Finish지점 : 코오롱호텔 삼거리)

주 최 대한육상연맹, KBS, 조선일보, 코오롱

주 관 경상북도육상연맹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주시, 경주교육청, 경주경찰서

특별후원 (재)올림픽마라톤후원회

구 간

총 4구간 (전장 : 15km)
제 1구간 : 4km (코오롱호텔 삼거리~블루원 C.C)
제 2구간 : 4km (블루원 C.C~신평교 삼거리)
제 3구간 : 3km (신평교 삼거리~블루원 C.C)
제 4구간 : 4km (블루원 C.C~코오롱호텔 삼거리)
※유턴지점 : 신평교 다리 끝지점

참가팀 자격

각 소속 단일 팀 (참가팀 제한 없음)

선수 자격

전국 남 · 여 중학교 재학 선수로
1) 대한육상연맹에 2017년 선수등록을 필한 자
2) 등록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팀별 참가 인원

1) 임원 : 3명 (학교장, 감독, 코치)
2) 선수 : 5명 이하 (정선수 4명, 후보 선수 1명 허용)
※ 기 신청된 참가선수 이외의 선수교체는 감독자회의 시 1명에 한해서 교체 가능
단, 후보 선수는 종전대로 1명까지만 허용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 (http://www.kaaf.or.kr/PLAYER/)
※ 신청마감 : 2017. 2. 28(화) 18:00까지
※ 우편접수 및 팩스신청은 일절 받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사진 필히 첨부)

구비 서류

1) 참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 소정 양식에 의거,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과 각 시 · 도 육상경기연맹 회장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 선수단 각 개인별 증명사진 필히 첨부 (3cm×4cm)
3) 명시된 규격 및 형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 온라인참가신청에 파일 첨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자 회의, 개회식, 시상식

1) 감독자 회의
일시 : 2017년 3월 24일(금) 13:30 장소 : 코오롱호텔 영지B홀 (TEL : 054) 746-9001)
※ 선수표, 어깨띠 배분, 각 구간별 참가선수 명단 제출

2) 개회식
일시 : 2017년 3월 24일(금) 17:30 (16:30부터 리허설 : 선수단 전원 참석)
장소 : 코오롱호텔 오운홀 (필히 교기 지참)

3) 시상식 (폐회식)
일시 : 2017년 3년 25일(토) 14:30 장소 : 코오롱호텔 오운홀 (당일 선수단 점심은 코오롱에서 제공)

경기 운영

1) 경기 운영 세칙

- 개인 시간의 합계로 팀별 순위를 결정한다.
- 제 1 주자는 일제히 출발한다.
- 제 2 주자부터는 선착순으로 중계한다.
- 경기 중 사고로 인하여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선수는 그 구간의 최종선수와 동시 스타트하고 사고 구간의 기록은 최하위 선수의 기록에 10분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 선수 배치 : 각 구간별 선수 배치는 스타트 60분전 해당구간에 배치한다.

2) 각 구간별 참가선수 명단 제출

- 각 구간별 참가선수 명단은 감독자 회의 시 제출한다.
- 명단 제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할 수 없다.(단 발병으로 인한 변경여부는 반드시 본부 의무진의 진단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경기당일 07:00까지

반주

반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며, 발각되었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시상, 특전 및 출전팀 지원

1) 시상

남 · 여 단체 우승 : 상장, 우승배, 훈련 지원금 500만원
남 · 여 단체 2위 : 상장, 트로피, 훈련 지원금 300만원
남 · 여 단체 3위 : 상장, 트로피, 훈련 지원금 200만원
남 · 여 단체 4 ~ 6위 : 상장, 훈련지원금 50만원 상당
남 · 여 개인 구간 우승 : 상장, 메달
남 · 여 우승교 감독 : 상패, 훈련연구비 100만원

※기록 포상금

남, 여 단체기록 갱신 시 : 상장, 훈련지원금 200만원
(대회 신기록 : 남자 49분 32초 / 여자 54분 01초)
남, 여 구간 신기록 수립 선수 : 상장, 상품권 50만원

2) 특전

참가선수 중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의 경우 고교졸업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코오롱그룹 취업과 함께 현역선수로 활동 할 수 있음.

3) 참가팀 지원 (고등부 지원 사항과 동일)

- 왕복 교통비 (학교통장으로 입금) : 고속버스 요금 기준 (소속 시 · 도청 소재지↔경주 / 단, 제주도 팀은 항공료 지급, 제주↔부산)
- 코오롱호텔 숙식제공 (2박 6식)
- 참가 선수 전원에게 경기복 및 트레이닝복 지급

부정 행위

1) 참가신청 선수 중 부정선수가 발견되면 해당팀의 참가를 취소한다.
2) 대회종료 이후라도 부정행위 혹은 부정선수 기용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팀의 성적이 취소되며 훈련지원금을 몰수한다.
3) 1), 2) 항에 해당되는 선수, 지도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기 타

1) 참가팀의 유니폼(트레이닝복 및 경기복)은 코오롱에서 제작 · 배포하며, 참가선수단은 반드시 제공받은 유니폼(트레이닝복 및 경기복)을 착용하고 경기 및 개회식, 시상식에 임해야한다.
2) 전년도 우승교는 개회식 시 우승기를 필히 반납한다.
3) 참가팀 대표는 3월 23일(목) 14:00~16:00에 대회본부를 방문하여 대회지 도착 사실을 알리고, 대회유니폼 및 식권 등을 수령해야 한다. ※ 대회본부 : 코오롱호텔(경주시 마동 111-1)
4) 참가한 각 선수는 가슴과 등에 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5) 각 구간 선수의 중계용 바통은 어깨띠로 한다.
6) 응원차량은 일절 불허한다. (앰뷸런스, 선수회수차는 대회본부에서 운영)
7) 기타 사항은 감독자회의에서 결정한다. 8)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marathon.co.kr/) 참조

제 3 3 회 코 오 롱 구 간 마 라 톤 대 회

대회 코스 안내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흥국화재 꼭꼭 약속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흥국화재가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약속.
그 약속은 소중한 이를 위한 당신의 마음이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당신의 꿈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지 알기에,
흥국화재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보험의 역할입니다.

흥국화재 상담전화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제작부서 : 기획관리팀(2015년 06월)
준법감시인확인필 : L150618-06-23

제33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
중등부
참가학교
소개

33rd MIDDLE SCHOOL 18team

♂ 건대사대부속중학교 · 배문중학교 · 서울체육중학교 · 광주체육중학교
대전체육중학교 · 신한중학교 · 경기체육중학교 · 음성중학교 · 단양중학교
계림중학교 · 순심중학교 · 제주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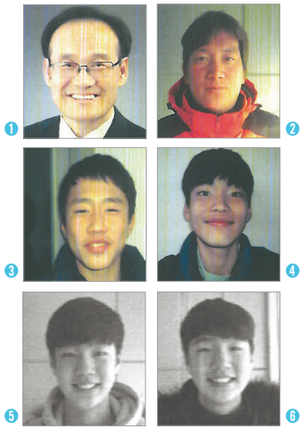
♀ 건대사대부속중학교 · 서울체육중학교 · 광주체육중학교
경기체육중학교 · 계림중학교 · 김천한일여자중학교

건대사대부속중학교

Since 1968

교장 : 이기호 | 감독 : 신영철 | 코치 : 이정래

건국사대부속중학교 육상부는 1991년 신영철 교사가 창단 하였습니다. 2009년 제25회 전국 코오롱(중학교)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여중부 단체 준우승 하였습니다. 2012년 제26회 전국 코오롱(중학교)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남중부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하였습니다. 2017년 에도 확실한 동계훈련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GAIN 2012!)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56.32	12
3회	2008	57.41	13
5회	2010	54.40	6
6회	2011	53.56	10
7회	2012	49.32	1
8회	2013	53.53	8
9회	2014		기권
10회	2015	1.08.46	18
11회	2016	55.38	11

❶ 신영철 / 감독
❷ 이정래 / 코치
❸ 조형빈 (3학년)
❹ 이선빈 (3학년)
❺ 손동원 (2학년)
❻ 손동희 (2학년)

배문중학교

Since 1965

교장 : 이세영 | 감독 : 지춘근 | 코치 : 엄순현

培文중학교는 1965년도 창단하여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육성하는 목적은 모든 운동의 기본인 육상을 당장 성적에 연연하여 어린 선수들이 혹사 당하여 선수 생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많으나 본교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매학교인 배문고등학교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과 무리없는 훈련으로 대기만성형으로 선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로서 본교를 거쳐 훌륭한 대표급 선수로서 국가대표출신의 장신권, 유대영, 오서진 등등..수많은 선수들이 차세대 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꿈나무 육성에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2017년도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에 임하는 배문중학교 선수들은 2016년도 영광을 이어서 다시 한번 우승을 재현하기 위해 50일간 제주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했으며, 2017년 2월에 실시된 제3회예천 도효자배중학교 5km 부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선수로는 한승엽(2학년),김윤식(3학년), 박지원(3학년) 선수가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50.26	1
3회	2008	49.56	1
4회	2009	51.19	2
5회	2010	50.52	2
6회	2011	52.13	6
7회	2012	53.33	8
8회	2013	50.40	2
9회	2014	50.13	2
10회	2015	51.20	2
11회	2016	49.3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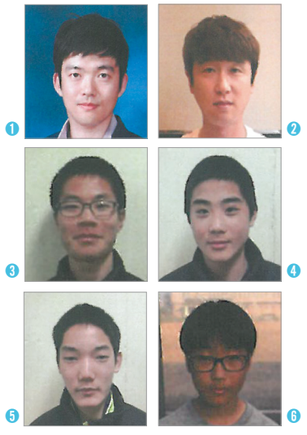
❶ 지춘근 / 감독
❷ 엄순현 / 코치
❸ 김윤식 (3학년)
❹ 박지원 (3학년)
❺ 한승엽 (2학년)
❻ 허태성 (2학년)
❼ 이정훈 (2학년)

서울체육중학교

Since 1971

교장 : 전용동 | 감독 : 강병훈 | 코치 : 어경돈

서울 체육중학교는 1971년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실 · 근면 · 협동의 교훈 아래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과 영광의 현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80년 LA 올림픽부터 현재까지 금 15, 은 7, 동 5, 총 27개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여 국가의 명예를 드높여 왔으며,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 남자부에서 4회, 5회, 6회 3연속 우승으로 우승기를 영구 보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삼성전자의 최병광 선수와 마라톤 국가 대표 선수 강원도청 소속의 김도연 선수, 800m 한국 신기록을 세웠던 최세범 선수가 서울 체육중학교 출신이며, 학생들은 미래 스포츠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지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53.5	10
3회	2008	51.48	4
4회	2009	50.38	1
5회	2010	50.32	1
6회	2011	50.00	1
7회	2012	51.53	4
8회	2013	54.10	11
9회	2014	53.54	8
10회	2015	51.36	3
11회	2016	51.13	4

❶ 강병훈 / 감독
❷ 어경돈 / 코치
❸ 조민재 (3학년)
❹ 이윤상 (3학년)
❺ 박현우 (3학년)
❻ 전유민 (1학년)

광주체육중학교

Since 1984

교장 : 김귀희 | 감독 : 조태성 | 코치 : 김영동

본교는 체육영재 발굴과 잠재력 계발을 바탕으로 유능한 체육 지도자 육성을 설립 목적으로 1983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체육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중장거리 선수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그동안 출전을 하지 못했으나 29회 대회부터 출전하여 꾸준히 기록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늘 노력하는 자세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학생들이 대견스럽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장거리훈련을 많이 소화했고 지금까지 최고성적인 7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8회	2013	56.27	19
9회	2014	53.15	7
10회	2015	55.30	10
11회	2016	55.35	10

❶ 조태성 / 감독
❷ 김영동 / 코치
❸ 김현우 (3학년)
❹ 김기철 (3학년)
❺ 조현욱 (2학년)
❻ 김수영 (2학년)
❼ 김수완 (1학년)

대전체육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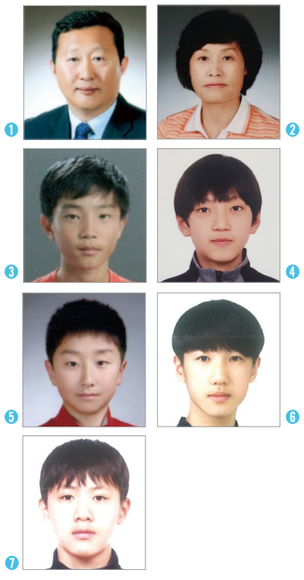
Since 1992

교장 : 김종성 | 감독 : 박호진 | 코치 : 김순화

대전체육중학교는 동쪽으로 과학연구단지와 엑스포 과학 공원, 서쪽으로 계룡대 · 동학사와 계룡산, 남쪽으로 도안 신도시, 북쪽으로 유성온천과 국방대학 · 세종시가 위치한 삼만 육천평의 대지위에 1992년도에 개교를 하였으며, 육상 중 · 장거리부를 비롯한 15개부 전교생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 · 도전을 실현시켜주는 육상 장거리 꿈나무 선수들의 등용문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회인 코오롱구간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본교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학교의 명예를 걸고 출전 하였으며, 감독 · 코치 선생님의 마음을 설레 이게 하는 본 대회에 본교는 항상 우승을 목표로 출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3학년 이재우 2학년 이동규, 정승균 1학년 김규진, 조민경 등의 선수들은 감독 · 코치 선생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아래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였으며, 대전체육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목표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❶ 박호진 / 감독
❷ 김순화 / 코치
❸ 이재우 (3학년)
❹ 이동규 (2학년)
❺ 정승균 (2학년)
❻ 김규진 (1학년)
❼ 조민경 (1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52.47	5
3회	2008	52.06	6
7회	2012	53.47	9
8회	2013	51.52	4
9회	2014	51.49	3
10회	2015	59.19	14
11회	2016	56.0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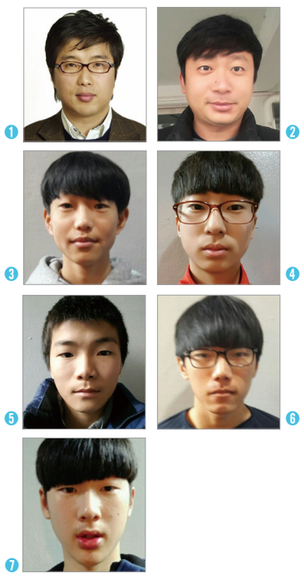
신한중학교

Since 1965

교장 : 황찬규 | 감독 : 김기식 | 코치 : 최종락

우리 평택신한중학교(교장:황찬규) 육상부는 2010년 9월에 재창단하였고, 체육시간을 통하여 자체 선발한 학생들로 구성된 신생팀입니다. 중장거리 선수외에도 단거리2명, 투척 1명으로 다양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1970년부터 약 20년간 육상부를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장거리 위주로 전국 대통령배를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모교를 졸업한 선배님으로는 대한육상경기연맹 임상규 선생님과 경기도육상경기연맹 유정준 전무이사님 등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육상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계십니다.

코오롱 대회는 우리 중장거리 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회로 생각합니다. 코오롱이라는 기업이미지처럼 대회운영 측면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참여하는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대회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선수를 꿈꾸는 학생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기록이나 결과에 따라 홍보도 되고 상금도 매력적이어서 우리 선수들은 코오롱대회 참가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교는 매년 출전하여 코스의 인식은 충분하며 이번에는 6위 권을 목표로 연습하였습니다.



❶ 김기식 / 감독
❷ 최종락 / 코치
❸ 유기태 (3학년)
❹ 유영무 (2학년)
❺ 김민준 (2학년)
❻ 강민규 (2학년)
❼ 이재환 (2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6회	2011	53.24	8
7회	2012	52.11	5
8회	2013	55.06	14
11회	2016	1.02.2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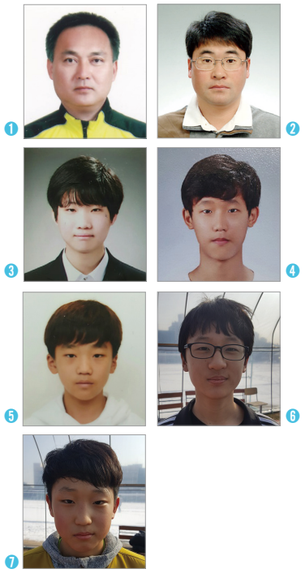
경기체육중학교

Since 2011

교장 : 신동원 | 감독 : 선재복 | 코치 : 김춘식

경기체육중학교는 2011년 3월 1일 개교한 신설 학교로 광교산이 보이는 수원시 장안구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동원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거듭한 결과 2015년 경기도내 학생 단축마라톤 대회에서 남중 단체 우승과 여중 단체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성실, 인내, 용기"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상(생동하는 학교, 미래가 있는 학교), 교사상(연구하는 교사, 열성으로 가르치는 교사), 학생상(예절바른 학생, 노력하는 학생)을 정립하여 시대에 부흥하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지닌 경기체육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중장거리 선수 육성의 명문팀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❶ 선재복 / 감독
❷ 김춘식 / 코치
❸ 정진혁 (3학년)
❹ 김승현 (3학년)
❺ 배문철 (2학년)
❻ 김민석 (1학년)
❼ 고재욱 (1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0회	2015	52.25	5
11회	2016	55.09	9

음성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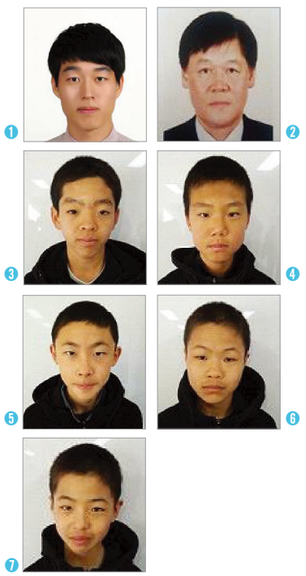
Since 1948

교장 : 이학래 | 감독 : 허원철 | 코치 : 피동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고향인 음성에 위치한 우리 음성중학교는 제4회 대회에 종합 4위, 구간신기록 1개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육성할 선수 부재로 잠시 침체되기도 했었으나 2016년에 팀을 재창단하여 현재는 3학년 1명, 2학년 3명, 1학년 3명 총 7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중학교는 1948년 개교 이래 70년에 빛나는 역사를 바탕삼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 부임하신 이학래 교장선생님과 전 교직원의 한결같은 응원 속에서 우리 선수들은 장래 한국 마라톤 국가대표라는 목표 아래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본교를 졸업하신 분들로는 이종찬 현 충북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반영만 마라톤 한국 신기록 수립자, 손명준 리우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 등 이름만 들어도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찬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음성중학교는 명실상부 최고의 마라톤 명문중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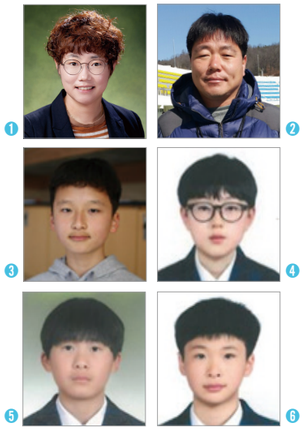
❶ 허원철 / 감독
❷ 피동수 / 코치
❸ 김민수 (3학년)
❹ 유진서 (2학년)
❺ 이한비 (2학년)
❻ 김경현 (1학년)
❼ 김경훈 (1학년)

단양중학교

Since 1945

교장 : 조성남 | 감독 : 김수미 | 코치 : 안성영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단양중학교 육상부는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 위하여 2016년 9월에 창단식을 다시 할 정도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 김수미 / 감독
2. 안성영 / 코치
3. 방민영 (3학년)
4. 김시현 (2학년)
5. 최수호 (2학년)
6. 손오성 (2학년)

단양중

계림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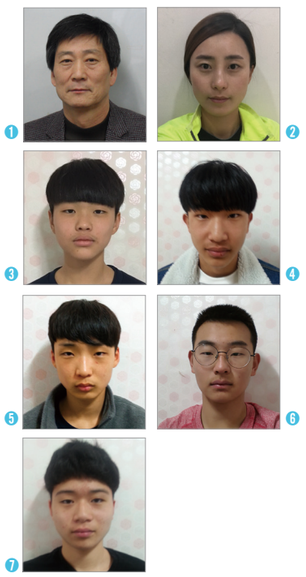
Since 1985

교장 : 김의기 | 감독 : 이종운 | 코치 : 조민영

경주의 중심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이 근접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경주에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입니다.

1993년도 팀창단 96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3000m 1위, 1500m 3위 2002년 문화체육부장관 기대회 800m 1위을 했으며 제40회 전국소년체대회 400mR 금메달,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00m 동메달 · 400mR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계림중학교는 각종경북대회에 경주시대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4회	2009	1.00.55	14
5회	2010	59.12	12
6회	2011	56.29	13
7회	2012	56.11	13
8회	2013	56.06	16
9회	2014	55.58	12
10회	2015	57.54	12
11회	2015	1.01.36	16



1. 이종운 / 감독
2. 조민영 / 코치
3. 이민형 (3학년)
4. 정교진 (3학년)
5. 윤진석 (2학년)
6. 이재서 (2학년)
7. 정현영 (1학년)

순심중학교

Since 1936

교장 : 김종혁 | 감독 : 임종석 | 코치 : 주인영

팀 창단 : 1936년

팀 훈 : 항상 충실하게

팀 정신 :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악착 같이

감독 지도 방침 : 진실 된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53.08	7
3회	2008	53.59	10
5회	2010	58.42	11
6회	2011	57.14	15
7회	2012	52.42	6
8회	2013	55.28	15
9회	2014	55.31	11
10회	2015	54.34	8
11회	2016	58.2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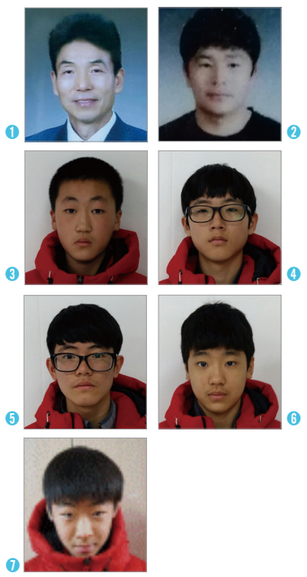
1. 임종석 / 감독
2. 주인영 / 코치
3. 김민수 (3학년)
4. 김민우 (3학년)
5. 박신영 (3학년)
6. 이정훈 (2학년)
7. 조지섭 (3학년)

제주중학교

교장 : 김영민 | 감독 : 이영기 | 코치 : 양순규

1945년 12월1일 개교하여 명륜 창조 건강 교훈아래 자주성과 도덕성 및 창조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건학이념 아래 명문 중학교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기는 전국 최정상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축구부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올해 본교를 졸업한 박민호군은 본 주체 대회인 제8회 코오롱스포츠 중학교 구간마라톤대회에서 남중부 제3소구(3Km 구간)에서 1위에 입상을 하여 본교를 위상을 빛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도 저학년 위주의 멤버로 구성 되어 출전 하지만, 3년 동안에 착실히 준비하여 그동안 강도 높은 동계 강화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백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2013년도 대회의 경기력 재연과 함께 구간별 상위 입상 및 단체 중위권 진입 목표로 대회 출전에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기대되는 선수로는 2학년에 재학중인 고동욱 선수에게 좋은 경기결과를 기대해보며, 비록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는 타시도 선수들에 비해 기량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동안 꾸준히 훈련해 온 대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7회	2012	59.05	17
8회	2013	54.09	10
9회	2014	57.40	17
10회	2015	1.01.13	16
11회	2016	54.1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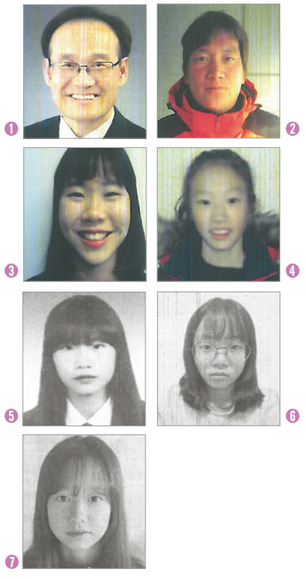
1. 이영기 / 감독
2. 양순규 / 코치
3. 김서원 (3학년)
4. 고동욱 (2학년)
5. 고혁준 (2학년)
6. 임성준 (3학년)
7. 백민재 (1학년)

건대사대부속중학교

Since 1968

교장 : 이기호 | 감독 : 신영철 | 코치 : 이정래

건국사대부속중학교 육상부는 1991년 신영철 교사가 창단 하였습니다. 2009년 제25회 전국 코오롱(중학교)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여중부 단체 준우승 하였습니다. 2012년 제26회 전국 코오롱(중학교) 구간 마라톤 대회에서 남중부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하였습니다. 2017년 에도 확실한 동계훈련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GAIN 2012!)



❶ 신영철 / 감독
❷ 이정래 / 코치
❸ 김도희 (3학년)
❹ 황예린 (2학년)
❺ 김현아 (2학년)
❻ 조서현 (1학년)
❼ 장효린 (1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56.32	12
3회	2008	57.41	13
5회	2010	54.40	6
6회	2011	53.56	10
7회	2012	49.32	1
8회	2013	53.53	8
10회	2015	4구간 기권	
11회	2016	1.00.46	5

서울체육중학교

Since 1971

교장 : 오정훈 | 감독 : 전흥수 | 코치 : 어경돈

서울 체육중학교는 1971년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실 · 근면 · 협동의 교훈 아래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과 영광의 현장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80년 LA 올림픽부터 현재까지 금 15, 은 7, 동 5, 총 27개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여 국가의 명예를 드높여 왔으며,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 남자부에서 4회, 5회, 6회 3연속 우승으로 우승기를 영구 보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삼성전자의 최병광 선수와 마라톤 국가 대표 선수 강원도청 소속의 김도연 선수, 800m 한국 신기록을 세웠던 최세범 선수가 서울 체육중학교 출신이며, 학생들은 미래 스포츠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은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지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❶ 전흥수 / 감독
❷ 어경돈 / 코치
❸ 김가온 (3학년)
❹ 김시온 (2학년)
❺ 지희원 (2학년)
❻ 박연오 (2학년)
❼ 박세윤 (2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2회	2007	1.04.11	7
3회	2008	28.12	기권
4회	2009	34.13	기권
5회	2010		기권
6회	2011	1.05.56	10
8회	2013	1.12.07	8
9회	2014	1.06.19	6
10회	2015	59.06	4
11회	2016	59.21	4

광주체육중학교

Since 1984

교장 : 김기회 | 감독 : 조태성 | 코치 : 김영동

본교는 체육영재 발굴과 잠재력 계발을 바탕으로 유능한 체육 지도자 육성을 설립 목적으로 1983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체육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중장거리 선수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그동안 출전을 하지 못했으나 29회 대회부터 출전하여 꾸준히 기록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늘 노력하는 자세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학생들이 대견스럽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장거리훈련을 많이 소화했고 지금까지 최고성적인 7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❶ 조태성 / 감독
❷ 김영동 / 코치
❸ 임자명 (3학년)
❹ 정진희 (2학년)
❺ 유지선 (2학년)
❻ 박상희 (1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9회	2014	1.02.51	5
10회	2015	4구간 기권	
11회	2016	1.06.59	8

경기체육중학교

Since 2011

교장 : 신동원 | 감독 : 선재복 | 코치 : 김춘식

경기체육중학교는 2011년 3월 1일 개교한 신설 학교로 광교산이 보이는 수원시 장안구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동원 교장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거듭한 결과 2015년 경기도내 학생 단축마라톤 대회에서 남중 단체 우승과 여중 단체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성실, 인내, 용기"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상(생동하는 학교, 미래가 있는 학교), 교사상(연구하는 교사, 열성으로 가르치는 교사), 학생상(예절바른 학생, 노력하는 학생)을 정립하여 시대에 부흥하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지닌 경기체육 영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중장거리 선수 육성의 명문팀으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❶ 선재복 / 감독
❷ 김춘식 / 코치
❸ 김민지 (3학년)
❹ 김다정 (2학년)
❺ 이은교 (2학년)
❻ 김담연 (1학년)
❼ 김도연 (1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10회	2015	1.11.35	9
11회	2016	1.02.35	6

계림중학교

Since 1985

교장 : 김의기 | 감독 : 이종운 | 코치 : 조민영

경주의 중심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이 근접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경주에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입니다.

1993년도 팀창단 96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3000m 1위, 1500m 3위 2002년 문화체육부장관 기대회 800m 1위을 했으며 제40회 전국소년체대회 400mR 금메달,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00m 동메달 · 400mR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계림중학교는 각종경북대회에 경주시대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❶ 이종운 / 감독
❷ 조민영 / 코치
❸ 공민경 (3학년)
❹ 정진안 (3학년)
❺ 황서영 (3학년)
❻ 박나라 (2학년)
❼ 최수빈 (2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7회	2012	1.19.45	10
8회	2013	1.09.58	7
9회	2014	1.20.07	9
10회	2015	1.08.58	8
11회	2016	1.09.05	9

한일여자중학교

Since 1970

교장 : 황인종 | 감독 : 정은희 | 코치 : 최영훈

본교는 1970년에 개교하여 이신호 재단 이사장님의 남다른 육상 사랑으로 2008년 육상부를 창단하여,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5회 2위, 6회 5위, 7회 우승, 8회 3위, 9회 2위,10회 우승를 차지 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20일간, 경남 고성에서 30일간의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학년과 2학년 선수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선수들 서로 하나가 되어 연습 때처럼만 뛰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것이라 생각합니다.

❶ 정은희 / 감독
❷ 최영훈 / 코치
❸ 권은지 (3학년)
❹ 서가은 (3학년)
❺ 송승민 (3학년)
❻ 이바다 (2학년)
❼ 최인녕 (1학년)

대회차수	대회년도	종합기록	순위
5회	2010	56.49	2
6회	2011	58.15	5
7회	2012	57.29	1
8회	2013	1.02.09	3
9회	2014	58.53	2
10회	2015	1.01.25	5
11회	2016	56.35	1

2014년 2회 연속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인증
2016년 KS-QEI 한국품질만족지수 7년 연속 시멘트, 레미탈 동시 1위
2017년 '한국윤리경영대상' 상생경영대상
2017년 14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시멘트 부문)

한일시멘트
www.hanil.com

"시멘트야? 컵라면이야?"

"레미탈입니다!"

1991년,
물만 섞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몰탈 방식의 시멘트인
레미탈이 처음 나왔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대한민국은
"달라진 건축문화"로 대답하였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레미탈은 라면종류만큼이나 많은 10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당히 성장한 20대 청년 레미탈,
비슷한 오해가 또 한번 반복될지라도
'레미탈'은 자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REMITAR

■ 레미탈영업팀 02.531.7151~2 ■ 특수레미탈팀 02.531.7143~4 ■ 테크니컬센터 042.638.9770~3

Heungkuk
Life Insurance

흥국생명 온라인 보험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창에 **흥국생명 온라인보험**을 입력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16-FA7-000007

교통통제 안내

고등부 (42.195Km) START 코오롱호텔 삼거리 ➡ 보문단지 힐튼호텔(1중계지점) ➡ 분황사(2중계지점) ➡ 무열왕릉(3중계지점) ➡ 동궁과 월지(4중계지점) ➡ 통일전(5중계지점) ➡ FINISH 코오롱호텔 삼거리

중등부 (15Km) START 코오롱호텔 삼거리 ➡ 신평교(반환점) ➡ FINISH 코오롱호텔 삼거리

오는 **3월 25일(토)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코오롱 구간 마라톤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주시내 각 구간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경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바랍니다.

- 선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선두 선수 통과 전부터 후미 선수 통과 시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 선수를 마주보고 오는 차량은 코스의 방향에 다라 직진,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코스 내 각 중계지점에는 주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주차 시 견인 조치 실시)
- 그 밖의 교통 통제로 인한 방향 안내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START ➡ 1중계지점(보문단지 힐튼호텔) - 7.7km
양방향 부분통제(통제시간 09:00~11:00 / 2시간)
- 1중계지점의 경우, 중등부 구간 마라톤 반환지점으로 양방향 통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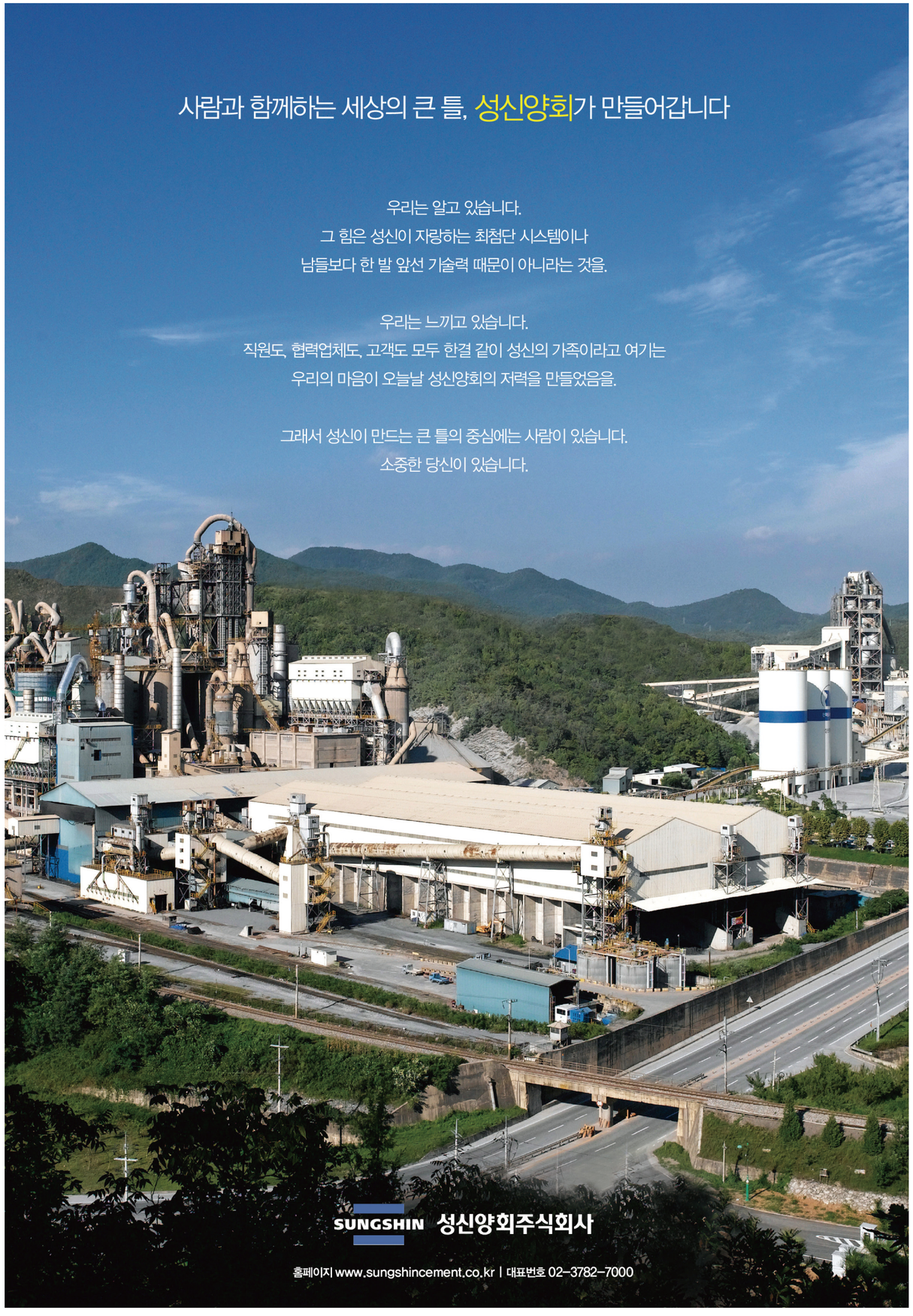
1중계지점(보문단지 힐튼호텔) ➡ 터미널사거리 - 7.7km~19.8km
진행방향 부분통제(통제시간 09:53~11:16 / 1시간 27분)
- 진행방향 차로만 부분 통제 실시

터미널사거리 ➡ 무열왕릉 ➡ 터미널사거리 - 19.8km~23.7km
양방향 전면통제(통제시간 10:30~11:33 / 1시간 8분)
- 무열왕릉 반환으로 인해 양방향 전면 통제 실시

터미널사거리 ➡ FINISH(코오롱호텔 삼거리) - 23.7km~42.195km
진행방향 부분통제(통제시간 10:41~13:00 / 2시간 19분)
- 진행반향 차로만 부분 통제 실시

위치 별 교통 통제 및 해제 시간표

구분	거리	위치/지점	통제 시간	해제 시간
Start	Start	코오롱호텔 삼거리	09:00	11:00
	2Km	공예촌휴게소 200m전	09:36	10:20
	4Km	블루원 리조트 입구 150m지나	09:42	10:20
	6Km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100m전	09:48	10:20
제1중계지점	7.7Km	보문단지 힐튼호텔	09:53	10:20
	8Km	보문휴게소(물레방아)앞	09:54	10:21
	10Km	경주 신라 C.C번홀 그린	10:00	10:30
	12Km	북군 마을 앞	10:06	10:39
	14Km	일천 축구장 진입로 50m전	10:12	10:48
제2중계지점	15Km	분황사 앞	10:16	10:53
	16Km	명원해물샤브샤브 뷔페 100전	10:19	10:58
	18Km	KT삼거리(경주교회)	10:25	11:07
	20Km	서천교	10:31	11:16
제3중계지점	21.7Km	무열왕릉앞	10:36	11:24
	22Km	첨길 150m전	10:37	11:25
	24Km	신라초교 앞	10:43	11:34
	26Km	오릉주차장	10:49	11:43
	28Km	천마총 주차장 50m전	10:55	11:52
제4중계지점	29.1Km	동궁과 월지 서편(구 인왕치안센터)	10:59	11:57
	30km	배반사거리 180 전	11:02	12:02
	32km	경북산림환경연구원	11:08	12:11
제5중계지점	34km	통일전 앞	11:14	12:20
	36km	LPG 충전소 건너편	11:20	12:29
	38km	S-Oil 주유소앞	11:26	12:38
	40km	구정리 방형분(구정삼거리)	11:32	12:47
FINISH	42.195km	코오롱호텔 삼거리	11:39	13:00



대회연혁/역대 참가팀 현황

1981. 11	전국 고교 단축 마라톤대회 창설(20km 단축 마라톤)
1982.	제01회 전국고교 단축 마라톤 개최(대구)
1983.	제02회 전국고교 단축 마라톤 개최(대구)
1984	제03회 전국고교 단축 마라톤 개최(대구)
1985.	전국 고교 단축 마라톤대회를 풀코스 학교 대항전으로 변경, 주최사 : KBS, 대한 육상경기 연맹, 코오롱
1985. 04. 07	제01회 전국남녀고교 구간 마라톤대회 개최(대구) : 남22팀, 여13팀 출전
1986. 03. 30	제02회 대회 개최(대구) : 남24팀, 여16팀
1987. 03. 29	제03회 대회 개최(대구) : 남27팀, 여19팀, 해외2팀(日本男女), 日本 최우수 고교팀 번외경기 첫출전(남1팀, 여1팀)
1988. 03. 27	제04회 대회 개최(대구) : 남28팀, 여14팀, 해외1팀(日本男)
1989. 03. 26	제05회 대회 개최(대구) : 남21팀, 여18팀, 해외1팀(日本男)
1995.	朝鮮日報社 공동 주최사 참여
1995. 04. 02	제11회 대회 개최(경주) : 남16팀, 여12팀, 해외3팀(日本男, 中國男女)
1996. 03. 30	제12회 대회 개최(경주) : 남15팀, 여13팀, 해외3팀(日本男, 中國男女)
1997. 03. 29	제13회 대회 개최(경주) : 남20팀, 여12팀, 해외4팀(日本男, 中國男女, 朝鮮族男)
1998. 02.	대회 명칭 변경 : 코오롱 고교 구간 마라톤대회
1999. 04. 03	제15회 대회 개최(경주) : 남2팀, 여16팀 해외2팀(日本男)
2000. 04. 01	제16회 대회 개최(경주) : 남20팀, 여14팀 해외팀 1, 일본(센다이고교)번외형식 참가
2001. 03. 31	제17회 대회 개최(경주) : 남21팀, 여16팀 해외1팀(日本男)
2002. 03. 30	제18회 대회 개최(경주) : 남23팀, 여10팀 해외1팀(日本男)
2003. 03. 29	제19회 대회 개최(경주) : 남18팀, 여12팀, 해외2팀(日本男, 中國男)
2004. 03. 27	제20회 대회 개최(경주) : 남18팀, 여12팀, 해외2팀(日本男, 中國男)
2005. 03. 26	제21회 대회 개최(경주) : 남18팀, 여15팀,
2006. 04. 01	제22회 대회(경주) – 국내최초 제1회 전국 중학교 로드레이스 대회 창설 (3Km 단일부문:총 15개 학교 참가)
2007. 03. 31	제23회 대회(경주) – 중학교 대회 15Km 4개 구간대회로 변경 (대회명:제2회 전국 중학교 구간 마라톤대회)
2008. 03. 29	제24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32팀– 남18, 여14 / 중학교32팀– 남15, 여17) 및 해외2팀(日本男, 中國男)
2009. 03. 28	제25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30팀–남19, 여11 / 중학교25팀–남14, 여11)
2010. 03. 27	제26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28팀–남16, 여12 / 중학교21팀–남12, 여9)
2011. 03. 26	제27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28팀–남16, 여12 / 중학교26팀–남15, 여11)
2012. 03. 31	제28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27팀–남18, 여 9 / 중학교30팀–남17, 여13) 및 해외2팀(日本男, 蒙古女)
2013. 03. 30	제29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30팀–남20, 여10 / 중학교28팀–남19, 여9) 및 해외2팀(中國男, 蒙古女)
2014. 03. 29	제30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24팀–남16, 여8 / 중학교29팀–남19, 여10) 및 해외3팀(日本男, 中國男, 蒙古女)
2015. 03. 28	제31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26팀–남17, 여9 / 중학교33팀–남20, 여13)
2016. 03. 26	제32회 대회 개최(경주) 참가팀(고교30팀–남19, 여11 / 중학교28팀–남17, 여11) 및 해외1팀(蒙古男, 蒙古女)

주요배출 선수

황영조 강릉 명륜고, 04회 1소구간, 05회 3소구간 우승 /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완기 남원상고, 02회 2소구간 우승 / 뉴욕 마라톤 3위, 한국 신기록 경신 3회
이봉주 광천고 04, 05회 출전 /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 現한국 최고기록 보유
김이용 강릉 명륜고, 06, 07, 08회 출전 / 애틀랜타 올림픽 12위
이창우 대창고, 02회대회 / 요미우리 마라톤 2연패
임춘애 성보 여상, 03회 1소구간 우승 / 서울 아시안 게임 3관왕
이미경 유봉 여고, 07, 08, 09회 3소구간 우승 / 동아 국제 마라톤 2연패
권은주 경북체고, 10회 4소구간 우승 / 조선일보 춘천 국제 마라톤 우승, 現한국 신기록 보유
지영준 충남체고, 15회 1소구간 우승 / 동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2위 / 중앙일보 마라톤 3위/
일본 호크렌 디스턴스 챌린지대회 5000m 4위 / 2009 대구 국제 마라톤대회 1위 /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 금메달
김민우, 백승도 (경북체고, 02회), **장기식** (남원상고,04회), **형재영** (남원상고, 03, 04, 05회),
제인모 (부산체고, 09, 10회), **유영훈** (배문고, 03, 04, 05회), **손문규** (청주고, 04회),
민여경 (전북체고 10회), ... 그 外 多

고등부 역대기록 대구코스 /1회~9회

역대 개인 구간 최고기록 : 대구코스(1회~9회)

구분	제 1구간 (9km)	제 2구간 (8km)	제 3구간 (10km)	제 4구간 (5,195km)	제 5구간 (10km)	종합기록 (42,195km)
남자 (男子)	남원상고 엄재철 2회 27.05	남원상고 김원기 2회 23.52	명륜고 황영조 5회 30.02	경북체고 김진한 4회 16.06	남원상고 형재영 5회 30.25	남원상고 2. 09. 22 (제02회 대회 '86)
여자 (女子)	전북체고 강순덕 8회 31.16	성남여고 정미자 4회 27.31	유봉여고 이미경 8회 34.14	제주여상 문성미 9회 18.24	성보여상 방선희 6회 36.00	성보여상 2. 32. 24 (제06회 대회 '90)

역대 단체 입상팀 : 대구코스

구분		우승	2위	3위	4위	5위	6위
제01회 대회 ('85. 04. 07)	남기록	경북체고 2. 14. 21	수원공고 2. 16. 07	성광고 2. 19. 13	춘천농고 2. 19 .15	배문고 2. 19 .27	대전체고 2. 19. 36
	여기록	태안여상 2. 43. 44	전북체고 2. 44. 05	문산여종고 2. 49. 46	진영여상 2. 50. 13	부평여상 2. 51. 15	오산여종고 2. 51. 48
제02회 대회 ('86. 03. 30)	남기록	남원상고 2. 09. 22	경북체고 2. 13. 31	춘천농고 2. 13. 57	남원농고 2. 15. 01	대전체고 2. 15. 29	배명고 2. 15. 37
	여기록	전남체고 2. 37. 23	태안여상 2. 38. 15	대전체고 2. 41. 13	사천여상 2. 42. 04	영천여고 2. 42. 56	전북체고 2. 47. 30
제03회 대회 ('87. 03. 29)	남기록	춘천농고 2. 13. 46	부산체고 2. 14. 24	남원상고 2. 14. 30	배영고 2. 15. 45	대전체고 2. 16. 37	경북체고 2. 16. 55
	여기록	경북체고 2. 35. 38	부산체고 2. 39. 28	경남체고 2. 39. 42	태안여상 2. 41. 26	전남체고 2. 44. 07	대전체고 2. 44. 40
제04회 대회 ('88. 03. 27)	남기록	남원상고 2. 12. 06	경북체고 2. 13. 57	전북체고 2. 14. 16	수원공고 2. 15. 11	대전체고 2. 16. 53	오산고 2. 17. 14
	여기록	전남체고 2. 35. 59	대전체고 2. 37. 47	태안여상 2. 39. 11	성남여고 2. 41. 36	경북체고 2. 41. 46	전북체고 2. 43. 21
제05회 대회 ('89. 03. 26)	남기록	남원상고 2. 14. 26	대전체고 2. 15. 52	구로고 2. 16. 31	경북체고 2. 16. 32	울산고 2. 16. 42	명륜고 2. 17. 01
	여기록	성보여상 2. 38. 59	강일여고 2. 40. 06	경북체고 2. 40. 33	안일여종고 2. 40. 59	전북체고 2. 41. 11	부산체고 2. 43. 52
제06회 대회 ('90. 03. 25)	남기록	대한공고 2. 16. 18	배문고 2. 16. 33	수원농고 2. 16. 49	대전체고 2. 17. 07	전북체고 2. 17. 15	경북체고 2. 17. 26
	여기록	성보여상 2. 32. 24	전북체고 2. 33. 59	안일여종고 2. 40. 43	산동종고 2. 42. 35	한일여고 2. 43. 20	부산체고 2. 46. 19
제07회 대회 ('91. 03. 31)	남기록	수원공고 2. 14. 51	경북체고 2. 15. 50	배문고 2. 15. 56	목포기공고 2. 16. 02	오산고 2. 17. 40	전북체고 2. 17. 49
	여기록	성보여상 2. 36. 24	전북체고 2. 39. 42	강일여고 2. 40. 07	태안여상 2. 40. 40	유봉여고 2. 41. 01	논산공고 2. 42. 58
제08회 대회 ('92. 03. 29)	남기록	경북체고 2. 14. 55	충남체고 2. 15. 18	광주종고 2. 15. 36	수원공고 2. 15. 55	배문고 2. 16. 42	구로고 2. 17. 42
	여기록	전북체고 2. 39. 15	경북체고 2. 41. 25	유봉여고 2. 41. 59	충남체고 2. 42. 30	성보여상 2. 43. 22	충북체고 2. 46. 03
제09회 대회 ('93. 03. 28)	남기록	충남체고 2. 15. 56	경북체고 2. 17. 44	전북체고 2. 18. 13	수원공고 2. 18. 26	광주종고 2. 18. 33	배문고 2. 18. 36
	여기록	인일여고 2. 40. 12	전북체고 2. 43. 16	경북체고 2. 44. 41	인천여상 2. 45. 10	유봉여고 2. 45. 48	서울체고 2. 47. 15

역대 개인 구간 우승자 : 대구코스

구분		제 1구간 (9km)	제 2구간 (8km)	제 3구간 (10km)	제 4구간 (5.195km)	제 5구간 (10km)
제01회 대회 ('85. 04. 07)	남기록	장전수 28. 14	홍용수 24. 49	신창석 31. 29	김성호 16. 27	배정환 32. 02
	여기록	박성순 34. 49	유정희 28. 59	백경자 37. 18	이양순 19. 41	고정금 38. 13
제02회 대회 ('86. 03. 30)	남기록	엄재철 27. 05	김완기 23. 52	나 석 31. 01	임광수 16. 07	손정주 31. 12
	여기록	임소라 33. 18	송문옥 29. 15	이현숙 37. 12	이양순 19. 20	최윤주 36. 05
제03회 대회 ('87. 03. 29)	남기록	이경식 28. 05	구진일 24. 54	김기복 31. 19	조용락 16. 35	형재영 31. 48
	여기록	임춘애 31. 49	김영남 29. 07	방경희 36. 21	정정숙 19. 81	김진희, 정일천 36. 56
제04회 대회 ('88. 03. 27)	남기록	황영조 27. 22	오백수 24. 02	임동만 31. 16	김진한 16. 06	형재영 31. 07
	여기록	박진희 32. 52	정미자 27. 31	안승미 36. 07	윤예자 19. 17	김을례 37. 39
제05회 대회 ('89. 03. 26)	남기록	강길주 27. 43	유영훈 24. 57	황영조 30. 02	김동식 16. 30	형재영 30. 25
	여기록	전영옥 32. 20	김수자 28. 34	김유정 35. 41	안덕순 19. 27	안희선 38. 19
제06회 대회 ('90. 03. 25)	남기록	정인교 27. 47	장진석 24. 55	이홍국 30. 43	조길식 17. 48	김용구 32. 46
	여기록	여종선 31. 19	이혜영 27. 49	조효영 36. 08	신경선 19. 50	방선희 36. 00
제07회 대회 ('91. 03. 31)	남기록	김순형 27. 35	오성근 25. 07	김민우 31. 09	송문현 16. 18	신재득 31. 58
	여기록	강순덕 32. 38	주은희 28. 25	이미경 35. 29	김환금 19. 42	안덕순 37. 18
제08회 대회 ('92. 03. 29)	남기록	지 호 27. 48	윤경선 25. 03	신재득 31. 14	문성미 18. 24	고정원 31. 08
	여기록	강순덕 31. 16	김순분 29. 17	이미경 34. 14	김해숙 19. 40	조진숙 38. 31
제09회 대회 ('93. 03. 28)	남기록	정상영 28. 05	정선옥 25. 35	이동길 31. 30	김정식 16. 30	이종호 31. 15
	여기록	박현희 32. 49	형지영 29. 12	이미경 34. 34	문성미 18. 24	안은양 37. 38

고등부 역대기록 경주코스 /10회~32회

역대 개인 구간 최고기록 : 경주코스 (10회~32회)

구분	제 1구간 (7.7km)	제 2구간 (7.3km)	제 3구간 (6.7km)	제 4구간 (7.4km)	제 5구간 (4.9km)	제 6구간 (8.195km)	종합기록(42.195km)
남자 (男子)	서행준 21회 22. 56	전은회 22회 20. 39	강 순 24회 19. 58	김준수 23회 22. 05	이동진 17회 14. 44	이두행 15회 25. 40	충북체고 2. 09. 35 (제23회 대회 '07)
여자 (女子)	현서용 27회 25. 08	원샛별 24회 23. 29	이연진 19회 22. 18	신사흰 24회 25. 12	강다은 28회 17. 04	장한나 27회 28. 37	상지여고 2. 25. 05 (제27회 대회 '11)

역대 단체 입상팀 : 경주코스

구분		우승	2위	3위	4위	5위	6위
제10회 대회 ('94. 03. 27)	남기록	경북체고 2. 14. 21	충북체고 2. 16. 42	전북체고 2. 17. 34	배문고 2. 18. 46	목포기공 2. 19. 03	대헌공고 2. 20. 05
	여기록	경북체고 2. 35. 30	인헌고 2. 40. 51	인천여상 2. 41. 31	전북체고 2. 41. 41	성보여정산고 2. 41. 48	충남체고 2. 41. 51
제11회 대회 ('95. 04. 02)	남기록	전북체고 2. 13. 54	충북체고 2. 14. 25	경북체고 2. 16. 03	충남체고 2. 20. 11	대전체고 2. 20. 29	대헌공고 2. 22. 11
	여기록	경북체고 2. 34. 50	전북체고 2. 37. 04	성보여정산고 2. 40. 06	인헌고 2. 41. 17	충남체고 2. 44. 04	충북체고 2. 44. 09
제12회 대회 ('96. 03. 30)	남기록	충북체고 2. 14. 55	경북체고 2. 15. 39	광양실고 2. 17. 34	춘천농공고 2. 17. 58	전북체고 2. 19. 20	충남체고 2. 19. 35
	여기록	충북체고 2. 37. 28	인천여상 2. 40. 35	안일여종고 2. 41. 04	충남체고 2. 43. 17	전부체고 2. 44. 01	경북체고 2. 44. 31
제13회 대회 ('97. 03. 29)	남기록	경북체고 2. 13. 15	배문고 2. 13. 35	목포기공고 2. 13. 54	충남체고 2. 14. 32	춘천농공고 2. 14. 50	충북체고 2. 16. 16
	여기록	충북체고 2. 31. 32	경북체고 2. 39. 08	안일여종고 2. 41. 52	강원체고 2. 42. 28	인천여상 2. 45. 02	서울체고 2. 48. 43
제14회 대회 ('98. 04. 04)	남기록	경북체고 2. 14. 05	배문고 2. 14. 17	충남체고 2. 15. 13	목포기공 2. 15. 31	충북체고 2. 15. 41	순심고 2. 16. 09
	여기록	안일여종고 2. 36. 25	은광여고 2. 39. 54	강원체고 2. 41. 26	인천여상 2. 42. 49	경북체고 2. 43. 22	경기체고 2. 43. 46
제15회 대회 ('99. 04. 03)	남기록	경기체고 2. 13. 16	춘천농고 2. 13. 21	전북체고 2. 13. 58	대전체고 2. 15. 03	경북체고 2. 15. 15	배문고 2. 16. 18
	여기록	대전체고 2. 36. 16	안일여종고 2. 37. 01	인천체고 2. 40. 02	경기체고 2. 41. 27	은광여고 2. 43. 07	나주여상 2. 44. 55
제16회 대회 ('00. 04. 01)	남기록	배문고 2. 14. 32	대전체고 2. 16. 04	경북체고 2. 16. 27	충남체고 2. 17. 12	경기체고 2. 17. 20	광양실고 2. 17. 42
	여기록	인천체고 2. 33. 58	경기체고 2. 34. 47	충북체고 2. 36. 41	경북체고 2. 40. 18	서문여고 2. 40. 58	상지여종고 2. 42. 57
제17회 대회 ('01. 03. 31)	남기록	충북체고 2. 10. 37	배문고 2. 11. 44	경북체고 2. 13. 52	전북체고 2. 14. 56	경기체고 2. 15. 57	중앙정보고 2. 16. 03
	여기록	인천체고 2. 31. 38	상지여고 2. 35. 25	경북체고 2. 35. 58	충북체고 2. 36. 36	서문여고 2. 38. 54	염광정보고 2. 41. 52
제18회 대회 ('02. 03. 30)	남기록	배문고 2. 13. 15	경기체고 2. 15.43	충북체고 2. 16. 43	대전체고 2. 17. 56	전북체고 2. 19. 23	대헌공고 2. 19. 43
	여기록	서문여고 2. 34. 37	인천체고 2. 34. 51	경기체고 2. 36. 53	충북체고 2. 47. 17	속초여고 2. 49. 09	상지여고 2. 51. 57
제19회 대회 ('03. 03. 29)	남기록	경기체고 2. 09. 47	충북체고 2. 15. 0	대인고 2. 15. 53	대전체고 2. 16. 24	춘천농공고 2. 16. 46	경북체고 2. 17. 07
	여기록	경기체고 2. 32. 38	서문여고 2. 34. 28	인천체고 2. 36. 36	서울체고 2. 41. 21	상지여고 2. 46. 20	경북체고 2. 49. 16
제20회 대회 ('04. 03. 27)	남기록	배문고 2. 11. 00	충북체고 2. 11. 47	대인고 2. 13. 40	경기체고 2. 14. 15	순심고 2. 14. 35	경북체고 2. 16. 13
	여기록	인천체고 2. 36. 38	서울체고 2. 39. 33	수원정산고 2. 41. 19	경북체고 2. 43. 32	충북체고 2. 44. 36	서문여고 2. 45. 10
제21회 대회 ('05. 03. 26)	남기록	배문고 2. 09. 39	충북체고 2. 13. 23	경북체고 2. 15. 33	전남체고 2. 16. 28	대전체고 2. 16. 32	순심고 2. 16. 45
	여기록	상지여고 2. 30. 49	서문여고 2. 36. 42	전남체고 2. 37. 13	이리여고 2. 37. 38	인천체고 2. 40. 10	경북여고2. 41. 01
제22회 대회 ('06. 04. 01)	남기록	배문고 2. 10. 37	충북체고 2. 11. 41	대전체고 2. 15. 46	대인고 2. 16. 07	순심고 2. 17. 33	부산체고 2. 18. 55
	여기록	상지여고 2. 29. 19	충북체고 2. 36. 43	속초여고 2. 38. 59	전남체고 2. 40. 30	작전여고 2. 42. 13	부산체고 2. 43. 12
제23회 대회 ('07. 03. 31)	남기록	충북체고 2. 09. 35	배문고 2. 11. 43	대인고 2. 12. 48	경기체고 2. 15. 16	경북체고 2. 16. 03	순심고 2. 16. 30
	여기록	작전여고 2. 31. 40	상지여고 2. 32. 52	속초여고 2. 35. 52	오류고 2. 38. 19	경북체고 2. 39. 18	충북체고 2. 40. 06
제24회 대회 ('08. 03. 29)	남기록	배문고 2. 13. 02	충북체고 2. 13. 20	순심고 2. 15. 08	서울체고 2. 16. 15	대인고 2. 17. 02	경북체고 2. 17. 58
	여기록	상지여고 2. 26. 46	오류고 2. 34. 11	속초여고 2. 35. 22	충북체고 2. 35. 50	경북체고 2. 36. 29	충남체고 2. 41. 16
제25회 대회 ('09. 03. 28)	남기록	경북체고 2. 12. 36	순심고 2. 14. 10	서울체고 2. 14. 32	충북체고 2. 15. 15	경기체고 2. 17. 19	배문고 2. 17. 55
	여기록	오류고 2. 32. 07	경북체고 2. 33. 40	서울체고 2. 34. 14	상지여고 2. 35. 21	속초여고 2. 37. 43	충북체고 2. 39. 22
제26회 대회 ('10. 03. 27)	남기록	순심고 2. 11. 13	경북체고 2. 12. 30	서울체고 2. 12. 52	배문고 2. 14. 27	충북체고 2. 15. 50	대인고 2. 18. 35
	여기록	오류고 2. 30. 44	서울체고 2. 31. 24	상지여자고 2. 32. 17	경북체고 2. 40. 19	충북체고 2. 40. 46	인천체고 2. 40. 56
제27회 대회 ('11. 03. 26)	남기록	배문고 2. 12. 15	경북체고 2. 12. 55	순심고 2. 14. 07	충북체고 2. 15. 57	대인고 2. 16. 10	강릉명륜고 2. 17. 45
	여기록	상지여고 2. 25. 05	오류고 2. 33. 15	서울체고 2. 26. 04	경기체고 2. 37. 10	경북체고 2. 41. 10	인천체고 2. 41. 20
제28회 대회 ('12. 03. 31)	남기록	배문고 2. 13. 12	순심고 2. 15. 24	경북체고 2. 17. 38	단양고 2. 18. 55	강릉명륜고 2. 19. 07	대인고 2. 19. 58
	여기록	상지여고 2. 32. 35	오류고 2. 34. 10	인천체고 2. 37. 35	경기체고 2. 43. 36	속초여고 2. 46. 07	충북체고 2. 53. 00
제29회 대회 ('13. 03. 30)	남기록	순심고 2. 13. 05	배문고 2. 15. 22	경북체고 2. 18. 06	서울체고 2. 18. 32	경기체고 2. 18. 57	충북체고 2. 19. 50
	여기록	오류고 2. 33. 26	인천체고 2. 38. 04	충남체고 2. 42. 22	경기체고 2. 43. 33	상지여고 2. 43. 48	부산체고 2. 50. 14
제30회 대회 ('14. 03. 29)	남기록	단양고 2. 16. 46	서울체고 2. 17. 40	순심고 2. 18. 08	경북체고 2. 20. 02	배문고 2. 20. 55	충남체고 2. 21. 48
	여기록	인천체고 2. 43. 43	오류고 2. 43. 38	경기체고 2. 43. 38	충남체고 2. 47. 45	경북체고 2. 50. 27	강릉여고 2. 50. 53
제31회 대회 ('15. 03. 28)	남기록	서울체고 2. 15. 54	단양고 2. 18. 23	경북체고 2. 18. 51	배문고 2. 21. 19	순심고 2. 21. 21	전북체고 2. 21. 54
	여기록	김천한일여고 2. 39. 03	충남체고 2. 43. 08	오류고 2. 45. 11	충북체고 2. 46. 52	경기체고 2. 47. 56	인천체고 2. 53. 42
제32회 대회 ('16. 03. 26)	남기록	단양고 2. 13. 19	강릉명륜고 2. 16. 37	경북체고 2. 17. 26	경기체고 2. 20. 08	충북체고 2. 20. 43	전남체고 2. 20. 44
	여기록	김천한일여고 2. 36. 39	충북체고 2. 41. 50	경기체고 2. 42. 15	오류고 2. 48. 28	경북체고 2. 51. 36	강릉여고 2. 55. 32

역대 개인 구간 우승자 : 경주코스

구분		제 1구간 (7.7km)	제 2구간 (7.3km)	제 3구간 (6.7km)	제 4구간 (7.4km)	제 5구간 (4.9km)	제 6구간 (8.195km)
제10회 대회 ('94. 03. 27)	남기록	제인모 25. 26	임종석 24. 02	장민수 14. 15	권오익 26. 01	윤광열 19. 11	민여경 23. 31
	여기록	손은영 29. 31	이경순 29. 18	안현정 15. 55	권은주 29. 05	심정화 23. 12	김남주 26. 57
제11회 대회 ('95. 04. 02)	남기록	최성식 25. 42	김인중 24. 21	박준철 13. 55	유영진 26. 08	김춘식 19. 22	이동석 23. 17
	여기록	오정희 29. 28	이미란 28. 43	최혜란 16. 10	배혜진 30. 15	심정화 22. 38	강보영 26. 48
제12회 대회 ('96. 03. 30)	남기록	송도영 23. 37	유영진 22. 57	이성운 21. 29	안세진 23. 47	심정철 15. 13	안명국 26. 04
	여기록	안종화 26. 10	김민선 26. 45	이정애 25. 21	김미정 27. 19	김선애 18. 18	황선미 30. 58
제13회 대회 ('97. 03. 29)	남기록	김진호 23. 31	신중호 22. 17	이두행 20. 29	손환익 23. 20	박주영 15. 27	안명국 27. 09
	여기록	배해진 26. 26	김민선 25. 15	김미정 24. 19	이상임 26. 12	이영은 18. 22	권화정 30. 42
제14회 대회 ('98. 04. 04)	남기록	이영구 25. 43	정홍욱 20. 07	구상모 20. 38	이동일 23. 06	김태호 15. 22	조근형 26. 03
	여기록	임경희 29. 58	김윤희 24. 33	안복희 24. 52	황이선 27. 13	이영미 18. 05	이정선 30. 33
제15회 대회 ('99. 04. 03)	남기록	지영준 23. 32	김영진 22. 00	김상우 20. 51	배성민 22. 52	정의진, 김동혁 15. 02	이두행 25. 40
	여기록	강영란 26. 52	김은정 25. 55	김윤래 24. 19	김이순 27. 34	윤효정 18. 37	유사라 30. 35
제16회 대회 ('00. 04. 01)	남기록	정민수 23. 57	엄효석 22. 26	홍석훈 20. 29	김용민 24. 04	김경수 15. 20	손훈익 26. 22
	여기록	정복은 26. 02	정세란 25. 43	이지혜 23. 35	김유정 27. 28	정은영 17. 32	윤설희 31. 13
제17회 대회 ('01. 03. 31)	남기록	장신권 23. 51	허장규 21. 29	김윤동 21. 06	김영춘 22. 59	이동진 14. 44	조장현 25. 52
	여기록	정은영 27. 18	최영미 25. 23	이연진 23. 57	김희연 25. 24	김지나 17. 43	김은정 29. 37
제18회 대회 ('02. 03. 30)	남기록	홍석훈 23. 27	엄효석 21. 16	이우열 20. 34	전상국 23. 38	추연길 15. 49	김재성 27. 03
	여기록	박호선 27. 46	이하나 25. 02	배은주 23. 47	송잎새 26. 44	이선욱 17. 57	정현희 31. 38
제19회 대회 ('03. 03. 29)	남기록	추연길 23.37	최종락 21.20	정연호 20.17	이다훈 23.06	추대수 15.05	원광연 26.22
	여기록	서현진 27.52	노유연 24.47	이연진 22.18	배은주 26.46	김우림 18.08	이세희 30.49
제20회 대회 ('04. 03. 27)	남기록	정지수 23.22	신상민 21.44	정권섭 20.09	나영신 22.53	오서진 15.08	이명환 26.52
	여기록	노유연 26.05	김미선 24.58	송민지 23.41	최지혜 27.25	안명은 18.17	김윤희 32.40
제21회 대회 ('05. 03. 26)	남기록	서행준 22. 56	전은회 21. 23	정권섭 22. 08	나영산 22. 49	송석민 15. 06	박찬규 27. 05
	여기록	김성은 27. 25	김이슬희 25. 05	양수현 22. 51	윤희라 26. 21	최한아 17. 49	진나리 30. 33
제22회 대회 ('06. 04. 01)	남기록	김재민 23. 23	전은회 20. 39	김준수 20. 02	유대영 22.51	김지훈 15. 25	오서진 27. 09
	여기록	김성은 26. 52	양수현 24. 39	원샛별 22. 59	정진우 25. 53	윤희라 17. 34	진나리 30. 57
제23회 대회 ('07. 03. 31)	남기록	김상훈 23. 19	백수인 21. 32	박찬규 20. 28	김준수 22. 05	오기석 15. 29	강 순 26. 28
	여기록	이숙정 27. 06	이지선 24. 41	진나리 23. 20	원샛별 25. 37	김선향 17. 52	김진하 30. 48
제24회 대회 ('08. 03. 29)	남기록	고준석 23. 21	김준수 21. 28	강 순 19. 58	김성하 24. 01	오기석 15. 22	신현수 26. 51
	여기록	정다움 26. 03	원샛별 23. 29	신예슬 22. 34	신사흰 25. 12	김하늘 17. 50	신수정 30. 43
제25회 대회 ('09. 03. 28)	남기록	전종완 24. 30	신현수 21. 33	김익현 20. 20	안학수 23. 11	한기승 15. 05	김희진 26. 04
	여기록	신사흰 26. 48	이숙정 25. 01	김은미 23. 16	홍은미 25. 44	오진아 17. 52	강수정 28. 52
제26회 대회 ('10. 03. 27)	남기록	조용원 23. 07	유창학 22. 13	강병규 20. 11	노시완 22. 19	이장섭 15. 11	최병수 26. 18
	여기록	김도연 28. 06	성산아 24. 17	진유정 22. 55	김은미 25. 29	이예랑 17. 17	이수민 29. 11
제27회 대회 ('11. 03. 26)	남기록	이명석 24. 43	손명준 21. 43	최민용 20. 33	김다빈 22. 33	강성용 15. 13	최병수 25. 56
	여기록	현서용 25. 08	김도연 24. 02	강현지 23. 08	이진이 25. 54	박민희 17. 33	장한나 28. 37
제28회 대회 ('12. 03. 31)	남기록	피승희 25. 01	김태진 22. 14	최민용 21. 07	김주안 22. 55	최용국 15. 06	강순복 25. 54
	여기록	현서용 27. 32	손유나 26. 09	장한나 24. 02	임윤희 26. 44	강다은 17. 04	강현지 29. 48
제29회 대회 ('13. 03. 30)	남기록	김승종 24. 19	김태진 21. 36	강정환 21. 01	박승호 23. 14	김민재 15. 35	이정진 26. 36
	여기록	김연아 26. 33	오달님 25. 24	손유나 23. 22	강다은 26. 22	조지원 18. 39	정혜원 31. 26
제30회 대회 ('14. 03. 29)	남기록	김강민 24. 15	조준행 21. 51	이경호 21. 05	신현식 23. 36	박준혁 16. 15	이동진 27. 37
	여기록	김연아 27. 30	김지민 26. 17	김영신 24. 27	이재영 27. 52	강혜진 19. 52	이해진 32. 17
제31회 대회 ('15. 03. 28)	남기록	이광식 24. 52	소유준 22. 40	신현식 20. 56	최용욱 23. 12	김봉근 15. 51	이동진 26. 16
	여기록	정다은 26. 34	박영선 26. 28	박명선 24. 38	김령이 27. 15	박혜주 18. 35	이유림 32. 04
제32회 대회 ('16. 03. 26)	남기록	이규성 23. 53	이경호 21. 58	임채갑 20. 20	김홍곤 23. 39	임영균 15. 42	마재현, 민병진 27. 15
	여기록	정세현 28. 12	이유림 25. 17	이수진 24. 16	이현정 28. 21	김소윤 17. 37	박현주 31. 38

중등부 역대기록 경주코스 /2회~11회

역대 개인 구간 최고기록 : 경주코스 (2회~11회)

구분	제 1구간 (4km)	제 2구간 (4km)	제 3구간 (3km)	제 4구간 (4km)	종합기록(15km)
남자 (男子)	가희도 3회 12. 53	전태웅 5회 11. 36	박준혁 7회 10. 39	이상민 7회 12. 09	건대부중 49. 32 (제7회 대회 '12)
여자 (女子)	강은서 5회 14. 00	박서윤 3회 12. 55	김령이 6회 11. 32	임윤희 4회 13. 24	동인천여중 54. 01 (제3회 대회 '08)

역대 단체 입상팀 : 경주코스

구분		우승	2위	3위	4위	5위	6위
제 2회 대회	남기록	배문중 50. 26	경북체중 51. 36	충주중 51. 57	예산중 52. 32	대전체중 52. 47	중앙중 53. 04
('07. 03. 31)	여기록	경북체중 55. 24	동인천여중 56. 51	대전체중 58. 45	설악여중 1. 11. 49	상지여중 1. 02. 29	신탄중앙중 1. 03. 14
제 3회 대회	남기록	배문중 49. 56	예산중 50. 39	이리동중 51. 12	서울체중 51. 48	음성중 52. 01	대전체중 52. 06
('08. 03. 29)	여기록	동인천여중 54. 01	경북체중 56. 27	오성중 56. 48	건대부중 57. 11	대전체중 57. 55	진건중 58. 53
제 4회 대회	남기록	서울체중 50. 38	배문중 51. 19	진건중 51. 29	음성중 51. 41	중앙중 52. 27	성보중 52. 32
('09. 03. 28)	여기록	동인천여중 54.31	건대부중 54. 47	상지여중 56. 57	진건중 57. 18	신정여중 57. 54	경북체중 59. 23
제 5회 대회	남기록	서울체중 50. 32	배문중 50. 52	옥천중 52. 28	경북체중 53. 15	진천중 53. 23	건대부속중 54. 40
('10. 03. 27)	여기록	상지여중 55. 23	한일여중 56. 49	동인천여중 59. 22	신정여중 59. 30	전남체육여중 1. 01. 43	고성여중 1. 01. 53
제 6회 대회	남기록	서울체중 50. 00	중앙중 50. 34	경북체중 51. 01	진건중 51. 48	예산중 51. 53	
('11. 03. 26)	여기록	동인천여중 56. 07	고성여중 56. 41	경북체중 56. 44	신정여중 57. 44	한일여중 58. 15	
제 7회 대회	남기록	건대부중 49.32	중앙중 50. 26	경기경안중 50. 41	서울체중 51. 53	경기신한중 52. 11	순심중 52. 42
('12. 03. 31)	여기록	한일여중 57. 29	동인천여중 58. 55	신정여중 59. 42	홍성여중 1. 01. 44	고성여중 1. 02. 54	알로이시오중 1. 03. 03
제 8회 대회	남기록	대구중앙중 49. 35	배문중 50. 40	해룡중 50. 59	대전체중 51. 52	경북체중 52. 51	경안중 53. 00
('13. 03. 30)	여기록	신정여중 59. 24	동인천여중 1. 00. 14	한일여중 1. 02. 09	간석여중 1. 05. 04	상지여중 1. 05. 14	예산여중 1. 08. 37
제 9회 대회	남기록	경북체중 50. 11	배문중 50. 13	대전체중 51. 49	진건중 52. 46	대전구봉중 52. 51	동도중 53. 04
('14. 03. 29)	여기록	신정여중 57. 34	한일여중 58. 53	동인천여중 59. 26	진건중 1. 02. 08	광주체중 1. 02. 51	서울체중 1. 06. 19
제 10회 대회	남기록	경북체중 50. 25	배문중 51. 20	서울체중 51. 36	진건중 52. 14	경기체중 52. 25	옥천중 52. 32
('15. 03. 28)	여기록	신정여중 55. 31	간석여중 57. 21	동인천여중 58. 49	서울체중 59. 06	한일여중 1. 01. 25	대전체중 1. 03. 55
제 11회 대회	남기록	배문중 49. 34	경기진건중 50. 48	대구체중 51. 00	서울체중 51. 13	경북체중 52. 37	서곶중 52. 58
('16. 03. 26)	여기록	김천한일여중 56. 35	간석여중 56. 38	신정여중 59. 06	서울체중 59. 21	건대부중 1. 00. 46	경기체중 1. 02. 35

역대 개인 구간 우승자 : 경주코스

구분		제 1구간 (4km)	제 2구간 (4km)	제 3구간 (3km)	제 4구간 (4km)
제 2회 대회	남기록	문삼성 12. 54	김일규 12. 28	이제민 11. 25	문경복 13. 30
('07. 03. 31)	여기록	백순정 14. 03	이규희 13. 25	정지은 13. 16	홍은미 14. 27
제 3회 대회	남기록	가희도 12. 53	나현영 12. 04	장정순 11. 01	김성구 13. 07
('08. 03. 29)	여기록	현서용 14. 12	박서윤 12. 55	홍미진 12. 20	구가영 14. 01
제 4회 대회	남기록	조의현 14. 00	조승민 12. 52	신기욱 10. 42	김성구 12. 12
('09. 03. 28)	여기록	김은영 14. 59	박민희 13. 34	박채윤 11. 42	임윤희 13. 24
제 5회 대회	남기록	김태진 12. 59	전웅태 11. 36	김성대 11. 26	강순복 13. 25
('10. 03. 27)	여기록	강은서 14. 00	김현정 13. 03	이다슬 12. 01	유선영 14. 06
제 6회 대회	남기록	안태현 13. 33	손병환 12. 14	송혁선 10. 53	이영우 12. 11
('11. 03. 26)	여기록	강은서 14. 25	정혜원 13. 41	김령이 11. 32	황소연 14. 05
제 7회 대회	남기록	안태현 13. 55	소유준 12. 12	박준혁 10. 39	이상민 12. 09
('12. 03. 31)	여기록	박영선 15. 50	이유리 14. 39	김령이 11. 46	박현주 14. 35
제 8회 대회	남기록	최유건 13. 35	박진곤 12. 10	박민호 10. 44	김태완 12. 29
('13. 03. 30)	여기록	김수연 15. 37	박서연 14. 21	임예지 12. 41	김다희 15. 32
제 9회 대회	남기록	신용민 13. 14	정찬엽 12. 01	양명언 11. 18	오성일 13. 13
('14. 03. 29)	여기록	박예진 14. 40	박서연 13. 33	윤은지 12. 43	윤예은 15. 11
제 10회 대회	남기록	양명언 13. 49	서원광 12. 18	윤재식 10. 47	박무영 12. 27
('15. 03. 28)	여기록	김수연 15. 06	윤예은 13. 39	진혜련 12. 02	송민지 14. 27
제 11회 대회	남기록	신용민 13. 32	양명언 12. 01	이동헌 11. 00	오성일 12. 02
('16. 03. 26)	여기록	김도희 15. 12	이하늘 13. 22	권하희 12. 26	정수아 14. 30

해외팀 기록

대회차수	학교명	종합기록	학교명	종합기록	학교명	종합기록	학교명	종합기록
3회(1987)	후나바시(일본)	2:12:47	우찌(일본)	2:36:03				
4회(1988)	사이따마 사까에(일본)	2:15:12						
5회(1989)	오무타고교(일본)	2:11:14						
6회(1990)	호또꾸고교(일본)	2:12:12						
7회(1991)	니시와키고교(일본)	2:11:42						
8회(1992)	오무타고교(일본)	2:11:23						
9회(1993)	니시와키고교(일본)	2:12:20	(중국)	2:31:30	우즈백 선발팀(남자)	2.30.05	우즈백 선발팀(남자)	2.30.05
10회(1994)	센다이고교(일본)	2:11:55	(중국선발팀)	2:34:05	DOROSEY고(남자)	3:07:45	GARDENA고(여자)	4:07:06
11회(1995)	서협공고(일본)	2:11:38	운남성학교(중국)	2:31:59				
12회(1996)	니시와키고교(일본)	2:12:22	천진체육학교(중국)	2:40:04				
13회(1997)	보덕학원고교	2:11:08	천진체육학교(중국)	2:37:40				
15회(1999)	다찌니시와키공업고(일본)	2:12:08						
16회(2000)	센다이고교(일본)	2:10:53						
17회(2001)	오무타고교(일본)	2:08:14						
18회(2002)	니시와키공업고(일본)	2:10:13						
19회(2003)	운남성체육운동학교	2:07:21						
20회(2004)	센다이고교(일본)	2:06:51	수마학원고교(일본)	2:27:41				
24회(2008)	좌구장성고교(일본)	2:13:28						
28회(2012)	센다이고교(일본)	2:14:36	보르노르고교(몽골)	2:55:09				
29회(2013)	상해체육학원(중국)	2:19:20	국립체육학교(몽골)	2:48:06				
30회(2014)	상해체대 고교(중국)	2:18:46	센다이고교(일본)	2:13:27	후뭉고교(몽골)	2:51:16		
32회(2016)	몽골국립체육학교(남자)	2:35:26	몽골국립체육학교(여자)	3:00:03				

PyeongChang 2018
공식 손해보험 스폰서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4654호(2016.10.10)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